

본 책자는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됨

The Magazine of sokchoArts & Culture

속초 예술

통권 제18호
2018



©서문일초

사단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
www.artsokcho.com



바다정원
Pasta & Bakery Cafe

동해바다 여행의 맛과 멋



갯바위

고동 띠개비 거북손 말미잘
청각 지능아래 미약 고르메

모두가 붙어산다

나이든 할머니
물갈하는 해녀
바닷가 사람들도
평생 물에 붙은 채

그들 곁에 붙어산다

나도
당신 등 뒤
어디쯤엔가

딱 붙어산다



김 종 현

2001년 <문학마을> 등단

시집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속초 문인협회 고문, 설악문우회(갈매) 회장

contents



햇살 좋은 날 2012
-watercolor on paper 90.9x65.1cm 30P



표지작가 서문일초

내 그림의 제목처럼 햇살 좋은 날 화사하게 핀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수채화는 물로 물감을 녹여 채색을 하기에 맑고 경쾌하며 순수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색채를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 한국여성작가회 심사위원



03	권두시	갯바위 - 김종현
06	커버스토리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환동해권 예술문화거점도시 속초를 꿈꾸다 - 편집부
10		꿈을 현실로 그려나간다 -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12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의 필요성 - 김철수 속초시장
15		2018 속초축제위원회 활동안내 - 백영철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18	설악신문으로 바라본	극작가 최재도
22	속초 예술인	서예가 이덕우
26		속초시립풍물단 전성호 악장
31		사진작가 임흥빈
35	예술산책	지역문인의 시(詩)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 김종현(시인)
48	회원특집	환동해권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시작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예술문화교류의 씨앗을 심다 - 엄계록(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 회장)
51		"의연하게" - 권다림(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회원(극단 소울씨어터))
56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며 - 황승연(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59	미술이야기	흔적 2018-8 - 김영복
60		자작, 하얀영혼의 실루엣 - 박동국
61		바다3 - 백중숙
62		가을하늘 - 정봉재
63		어울림 - 고주리
64		외설악 _ 5월의 향리 - 조정승

2018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회 통권 18호
www.artsokcho.com



- 65 **시공간을 프레임에** 변산아씨 - 김건수
66 비밀의 정원 - 김시권
67 Lake two jack - 김정희
68 입찰 - 박명호
69 눈길여행 - 홍순복

- 70 **속초에 흐르는** 단풍 - 채재순
71 **문학의 숨결** 흔들리는 청호동 - 최명선
72 주인 떠난 그곳에 - 정명숙
73 진해역 - 정영애
74 최저임금 1 - 조외순
75 **수필** 청호동이 수상하다 - 권정남
78 나에게 필요한 것은 - 노금희

- 80 **백일장 우수작** 제29회 설악학생백일장, 제24회 설악주부백일장

- 90 **학생미술작품 우수작** 제29회 설악학생미술작품공모 우수작품

- 92 **속초예총 이모저모**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18)는 - 편집부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예총 속초지회

속초시 번영로 155 (속초문화회관 내)
TEL.(033) 631-8070
FAX.(033) 632-8072
E-mail. art8070@daum.net

발행인 정 봉 재

발행일 2018. 12. 4.

편집인 이 정 무

<비매품>

이 책은 속초시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환동해권 예술문화거점도시 속초를 꿈꾸다



한국예총 속초지회는 지난 20여 년 간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환동해권 도시들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이러한 교류들이 긍정적인 동반상승 효과를 보여 올해 강원도와 속초시의 지원으로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등 5개 행사를 실시했다. 본 사업은 1개 기존사업과 4개 신규 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역민들에게 경험하기 어려운 외국 예술문화를 소개했고, 외국에는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도시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블라디보스토크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러시아 전통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양 도시 예술인 간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민속예술단 '오조르니키'를 초청하였다. 속초종합예술제 기간인 6월 15일~17일 3일간 엑스포 공원 특설무대에서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속초음악협회 정기공연, 러시아민속예술의 밤 등 세 차례 공연을 진행. 지역민들에게 생소한 바이올린, 발라이카, 발라이카 콘트라베이스 등 러시아 민속악기로 수준 높은 전통음악을 선보였고, 바이올린 명인 발레리 아나톨리비치 등의 명연은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민속예술인의 밤 공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빅토리아



연예선 설악청소년무용제에 함께한 러시아청소년예술단이 함께하여 행사를 빛냈다.

□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지난 2017년 속초와 연해주 고려인 간 예술문화교류를 위해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를 찾았다. 그 곳에서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고려인문화센터 담당자를 만나 문화교류의 시작으로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후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행사 세부내용을 협의. 5월 29일 우수리스크 고려

인문화센터에서 예선을, 7월 3일 우수리스크 군인극장에서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본선을 진행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18개 팀이 참여한 이 행사는 가요제를 통해 속초예술인과 우수리스크 고려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였고, 슬라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행사의 격을 높였다. 행사당일 군인극장 900여석은 만석에 이어 입석까지 이루었고, 10대부터 80대 어르신과 슬라브인 등 참가자들이 1930년대 음악부터 아이돌 음악과 북한·연변 조선족 음악 등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성공적인 행사를 펼쳤다. 특히 세션으로 참가한 속초연예예술인협회 회원들은 수준 높은 실력과 음정, 박자 등으로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로 많은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 환동해권 국제미술교류전

대한민국 중견작가들과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커버스토리



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환동해권 국제미술교류전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가졌다. 이 전시회는 속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작가들과 환동해권 도시들의 작가들이 한 자리에서 작품교류를 하는 행사로 예술인 간의 교류와 속초시민들의 다양한 미술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올해는 작품 58점이 전시되어 지역사회에 큰 호평을 받았지만 외국 작품의 경우 직접 작가와 작품이 오지 못하고, 일본 요나고의 경우 함께하기로 했으나 고사되는 등 첫 행사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明年에는 작가들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참여 도시를 늘리는 등 외연과 내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속초·연해주 고려인 문인교류전

서로 문화가 다른 민족 간 예술문화교류는 공통되는 감성을 교류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올해 국제문인교류전을 진행하기로 기획하였다. 함께할 환동해권 도시들과 접촉을 기울이다, 7월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긍정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본 사업도 함께하기로 하였다. 문인교류전은 속초문인협회 소속 작가들과 연해주 고려인 및 슬라브인 문인들의 작품을 각각 취합하여 상대방의 언어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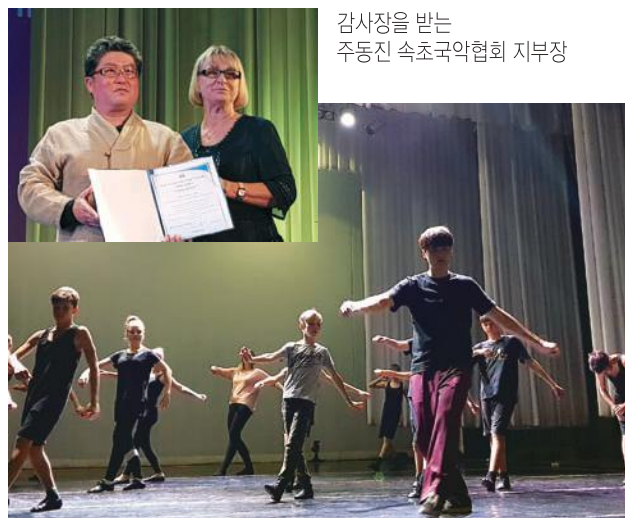
역 후 작품집을 제작. 속초시와 우수리스크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다. 속초문인협회는 작품집에 실을 작품으로 77점의 시와 수필을 보내 국내에서 번역했고,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또한 작품 16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자료를 넘겼다. 문학은 하나의 단어만 오류가 생겨도 그 의미가 많이 변질 될 수 있기에 번역된 작품들을 교차로 교정하여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12월 8일 속초문인협회 주관 '송년문학의 밤' 행사에 출판기념회를 함께하여 지역사회에 알리며 주변에 배포하였고, 절반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 보내어 지역에 배부 되었다.

□ 제2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

속초예총과 러시아 연해주 노총연맹은 지난 10여 년 간



러시아청소년무용단 초청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그 결실로 두 단체는 처음으로 공동 주관 교류전을 추진하여 공동 전시회'포커스'를 2017년 11월 22일부터 27일 연해주노총문화센터에서 실시. 속초·블라디보스토크·훈춘 공동 사진전과 함께 속초미술협회의 미술전, 문인협회의 시화전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2일 ~ 4일 기간 동안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제



감사장을 받는
주동진 속초국악협회 지부장

속초무용협회 김문성 회원이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K-pop 댄싱을 체험해주고 있다.

2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를 하였다. 올해는 러시아연해주청소년예술제를 맞이하여 공동 전시회 '포커스'뿐만 아니라 국악, 무용 등 속초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초청공연까지 예술장르가 확대되었다. 올해 전시회는 사진 10점, 미술 12점, 시화 10점으로 구성되어 러시아 사진, 미술작품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연

해주청소년콩쿠르 기간 중 국악과 무용이 각각 3회 씩 초청되어 우리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여 큰 갈채를 받았다. 행사기간 중 국립블라디보스토크예술학교와 아뜨에파쉬 현대미술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문화교류 관련 다양한 논의를 하였고, 행사를 찾아준 니나 리콜라에브나 연해주노총이사와 이신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강원도 주재관과 사업 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연해주노총연맹에선 성공적인 행사에 감사하여 정봉재 속초예총회장과, 주동진 속초국악협회지부장, 양숙희 속초무용협회 지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5개 사업은 속초예총과 8개협회의 노력과 속초시민들의 관심으로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속제도 남긴 본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엔 더욱 내실 있는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속초예술



꿈을 현실로 그려나가다

정 봉 재 |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국제문화교류 는 국경을 초월한 문화접촉으로 국가 간, 도시 간 관계구축의 시작이다. 이 활동은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효과를 주기에 정부는 200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예술 전문기획자들을 11개국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들은 공공과 민간이 안정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속초예총은 2000년부터 환동해권 도시들과 다양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해 왔다. 중국 훈춘과는 훈춘국제가요제와 훈춘청소년문예대회를 진행. 2016년엔 양 도시 사진작가협회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03년 제4회 훈춘국제가요제 축하공연

하였고, 그 결과 속초·훈춘 사진작가교류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속초종합예술제 행사 중 하나인 설악청소년무용제에 블라디보스토크청소년예술단 초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였고, 작년엔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전 ‘POCUS’를 진행하며



2017년 제1회 'POCUS' 행사

양 도시 주관단체인 속초예총과 연해주노동연맹 간 긍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요나고 등 환동해권 도시뿐만 아니라 올해는 필리핀 바야오 작품도 초청하여 교류도시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수리스크에서 7시간 떨어진 도시 '나호드까'에서 참가한 출연자

이러한 활동은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5개 문화예술교류의 출발점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 올해는 강원도와 속초시의 지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환동해권 국제미술교류전, 속초·연해주 고려인 문인교류전, 제2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 'POCUS' 등의 행사를 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에서 나그네의 설움을 부르신 80대 어르신 부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을 피해 이곳으로 정착했던 이야기를 해주며 이런 가요제를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무용공연을 보고 감동하여 공연단원들에게 수



↑ 2010년 러시아청소년예술단 속초공연

↓ 201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공연 '월하정인'

줍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토크 꼬마아이, 국악협회 판공의 다양한 기예를 보며 깜짝 놀라는 관객들 등 이런 교류활동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소소하고 다양한 추억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내년 활동을 보답해주지 않는다. 민간 국제문화교류는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기에 5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지, 만약 작년과 같은 사항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속초시는 21세기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국제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선 더더욱 민간문화예술교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해 본다. 속초예총은 환동해권 문화예술 중심도시 속초를 꿈꾸며 20년 동안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시안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시나브로 문을 두들기고 있다.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고 점점 단단하게 맞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 **속초예술**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의 필요성

김 철 수 | 속초시장

속초의 꿈 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1세기 들어 환동해경제권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국제해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북방향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속초의 미래비전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남북평화회담의 봄바람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확정된 '동서고속철도'가 조기 개설했다면 기존 동해·동서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의 국가기간 '우물정(井) 자형' 교통망이 완벽히 구축됩니다. 여기에 올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동해북부선이 완전히 연결될 경우 통일·북방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환동해 경제벨트 구상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 확보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방안을 보면 한반도의 동과 서를 각각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H자형 경제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를 환동해권, 환황해(서해)권, 비무장지대(DMZ) 등 3개 경제·평화벨트로 개발하고 이를 북방 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중심의 환동해 경제벨트는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 러시



아, 일본까지 연결하는 동방전략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국제관광 협력벨트 조성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두만강(나진)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남·북·러 에너지 협력과 해양자원 공동 이용, 동북아 에너지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의 핵심 개념은 ‘연결’과 ‘개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단절된 남한 경제, 북한 경제, 동북 경제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속초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속초항을 통해 북한 장전·원산·청진을 잇는 남북 평화 크루즈와 나진·선봉을 통하는 새로운 백두산 항로 개설, 강원도 동해안~나진~훈춘~자루비노 경제협력 벨트 구축 등 속초는 통일시대 중심이자 북방 교역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속초가 남북 교류 중심지로, 환동해권 주변 국가들의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이자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도 중요합니다. 경제영토는 단순히 지리적 연결만으로 넓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목적과 이익을 좇거나 경쟁을 위한 단기적 안목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교류야말로 경제교류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때 일어나는 역동성은 또다시 구체적인 경제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위에 속초예총이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다



는 사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예총은 20여 년간 중국 훈춘시와 훈춘국제가요제, 청소년문예대회를 진행하였고, 한·중·일·러 국제아동 미술교류전, 블라디보스토크 예술단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활동은 속초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제교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문화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는 총 5차례에 걸쳐 민속예술과 국제가요제, 문학과 미술, 무용, 국악 등의 분야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속초예총의 이러한 활동은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향한 속초시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속초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 변방으로 치부되며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속초와 동해안이 환동해 중심으로 우뚝 서 북방교육의 전초기지이자 세계 물류의 출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교류 활동은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높이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예술의 다양성이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와 이어지면서 경제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바랍니다.

속초시는 예술인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정책으로 예술도시 속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예술



50년 설악의 매력으로, 100년 축제의 설렘으로 2018 속초축제위원회 활동안내

백 영 철 |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속초축제위원회는 속초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예술이란 도구로 표현되어 승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축제’라는 틀을 이끌어 가는 단체이다. 1월 해맞이 축제부터 속초시 최대 축제인 설악문화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2018 해맞이 축제

신년 해맞이를 찾는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해맞이축제를 진행. 올해도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1박2일간 속초해변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시행한 해님이 불꽃놀이 행사는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내방객을 유입하게되는 콘텐츠로 성장하였고, 포토존은 관람객들의 SNS 활동으로 속초해변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속초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2018 붉은대게 속초

속초시 대표 수산자원인 붉은대게(홍게)를 콘텐츠로 겨울 축제를 개발하여 비수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여 지역 내 유관산업 간 연계와 경제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2017년부터 ‘붉은대게 속초’란 축제를 진행. 올해

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초 이마트 앞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속초시 대표 어족자원 중 하나인 붉은대게를 콘텐츠로 유명 셰프 요리 특강, 붉은대

게찜 600인 동시 시식, 붉은대게 요리경연, 경매, 게 줄다리기 등 메인행사와 함께 붉은대게 낚시, 어린이 돌게 낚시, 요트무료승선 및 각종 어린이 체험부스를 운영 하는 등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선보였다.



- 2018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속초시 대표 거리공연 프로그램인 ‘바다별빛 대포야 사랑해’는 속초시 대표 항구인 대포항을 찾은 관광객 대상 문화콘

텐츠 공연 행사이다.

- 2018 실향민문화축제 '아바이'

속초시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실향민. 사투리, 음식, 어업 등 속초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지역의 가장 큰 문화자산 중 하나다. 이런 문화를 하나의 축제로 집대성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실향민도시(통일거점도시) 속초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2016년부터 실향민문화축제를 개최. 올해는 개막식, 평양민속예술단, 이북 5도 무형문화제 공연 등 공식행사부터 강원도립국악단 공연, 망향제, 함상위령제, 속초시립풍물단 정기공연, 강원도 청소년 1950 가요제 등 메인행사공연이 진행되었다. 아직 과거의 유산들만 보여주고 미래의 상징에 관한 뚜렷한 콘텐츠가 없다는 비평도 받지만 축제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들과 더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2018 속초여름해변 페스티벌

8월 뜨거운 여름, 대한민국 최고 여름해수욕장인 속초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체험을 제공해 주고자 기획한 행사로 2일간 '속초 夜 PARTY'란 제목으로 진행했다. 이런 야간형 문화행사를 통해 인근지역 피서객들을 속초시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속초시를 젊은층에 홍보하는 효과를 주었다.

- 제53회 설악문화제

올해 53년의 역사를 가진 설악문화제는 시민화합과 문화관광이 혼재된 지역 최대 문화축제이다. 산악페스티벌에선

설악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설악산 마등령 오르기 등 등산행사와 산악인추모제, 설악산사진전시회, 설악산 숲속 시화전 등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거리페스티벌에선 개막식, 국제 락 페스티벌, 폐막식, 설악제례 등 공식행사부터, 오징어 할복대회, 동 대항 줄다리기, 북청물장수달리기 등 속초 시민 한마당 행사,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라는 각종 공연 및 체험행사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청소년 축제 '발악', '과학썩 잔치' 등 기획 및 연계행사도 함께했으며,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는 총 42개팀 1,138명이 총 3차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시민화합'이란 지난 축제의 모습과 '문화관광'이란 진화해가야 하는 방향성 사이에서 두 가지 모두 혼재된 이 축제는 매해 행사 중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함께하는 모두의 노력으로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고 자평한다.

속초축제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기획·진행하며 지역문화예술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원동력은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의 묵묵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축제가 속초 문화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과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 확대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문화예술과 문화관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속초시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과 특산물 먹거리 축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역량강화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속초축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에 속초시민 모두가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속초예술



설악신문

제 1374 호 2018년 11월 5일 | Tel. (033) 636-2222 / Fax. 636-2227 | www.soraknews.co.kr



설악신문으로 바라본 속초예술인

속초예총은 그간 '예인탐방'이란 제목으로 속초예술지에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과 예술철학 등을 기록했다. 그 기록은 예총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어쩌면 내부자의 작은 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주관적인 기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속초예술인에 대한 기록을 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 고민은 설악신문 구독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졌다. 설악신문 이광호 기자는 올해 1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술가의 작업실'이란 제목으로 총 11명의 지역 예술인에 대한 기획 기사를 올렸다. 편집자는 바로 기자와 연락하여 기사를 예술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 수락을 받아 4개 협회 4명의 예술인에 대한 기록을 올린다. 올해 올리지 못한 분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사를 예술지에 올리도록 허락해준 이광호 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자-

예인 탐방

- 속초문인협회 최재도
- 속초미술협회 이덕우
- 속초국악협회 전성호
- 속초사진작가협회 임흥빈

예술가의 작업실 - 극작가 최재도

설악산 · 동해 보이는 그의 작업실은 세상과 통하는 창

고성과 속초 사이에 바다 전망으로 유명해 주말이면 사람들이 북적대는 커피숍. 그 맞은편 별관 건물 3층에 최재도 작가의 작업실이 있다. 그 건물의 1층 입구에는 ‘이야기 제작소(Story Factory)’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3층에 오르자 밝고 아담한 공간이 나온다. 작업실에는 두 개의 면에 창문이 크게 배치돼 있어 방 안에 밝은 기운을 더한다. 한쪽 면의 창문은 설악산 울산바위를 향해 나 있고 다른 면의 창문은 동해를 향해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이 방에 들어서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문학적 감수성이 샘솟을 것 같다.

고성 토성 최재도 작가 ‘이야기 제작소’

작업실 내부는 단출하다. 책상에 컴퓨터 한 대, 손님을 맞는 소파, 그리고 책장 외에는 별다른 소품들이 없다. 책장도 크지 않고 작가가 작업에 필요한 책만 집에서 가져와 꽂아둔 상태다. 그리고 작업실에는 요즘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두툼한 책처럼 큰 라디오도 놓여 있다. 작가는 라디오 극을 주로 작업해 왔기에 평소에 라디오를 자주 청취하며 정보를 얻는다.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작품도 찾아 들으며 라디오 드라마의 흐름의 살피고 있다.

극작가의 작업실이라고 하면 수많은 대본들이 쌓여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마치 쉬기 위해 마련한 방처럼 아늑하고 깔끔하다. 작가는 실제로



작업실에 나와 작업을 하다가도 자주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옆에 크게 펼쳐진 술숲을 거닐며 동해와 설악산을 바라본다. 작업마저도 때론 여유롭게 이뤄진다. 작업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에 글을 쓴다. 작가처럼 그 자리에 서 본다.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잠시 고개만 들어도 새로운 생각이 창밖에서 스며들어올 듯하다.

이 작업실은 작가의 대외 활동 장소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리고 명상을 좋아하며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작가에게는 이 작업실이 요즘의 세태를 살피는 근거지이다. 자신의 작업실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는 주말에 전국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커피숍 아무 자리에 커피 한 잔만 놓고 앉아 귀만 열고 있어도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 사람들의 차림새나 행동도 관찰 대상이다. 작가의 작업실에는 두 가지 커다란 창문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는 창문,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창문이다.

작업실의 건너편에 있는 건물과 그 주위 바다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와는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은 조용한 외판방의 느낌이다. 작업실을 나와서 몇 발짝만 걸어도 사람들에게 치이는 기분이 들지만 그의 작업실로 다시 들어가면 고요한 분위기이다. 작가는 일부러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 외판원도 이곳을 찾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온전히 홀로 고립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디오 단막극 80여편·연속극 50여편...

최재도 작가는 1977년 'KBS 라디오 드라마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스물한 살 때였다. 이른바 '소년급제'이다. 글로써 자신의 인생에 승부를 걸어보기 위해 해군사관학교를 중퇴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일이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극작가 신봉승과 차범석이 있었는데 차범석은 이때의 수상작인 <천사의 저주>를 몇 년 동안 보아온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극찬을 했다 한다. <천사의 저주>는 그의 데뷔작이었음에도 이듬해 EBU(유럽 방송연맹)가 주최하는 <라디오 우수드라마 콘테스트>에 출품됐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그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만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갔다 온 80년대 초반에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KBS에 가보니 전두환 정권의 방송통폐합으로 자신이 잘 모르는 직원들이 와 있어 KBS에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

다. 그러나 그는 극작을 멈추지 않았고 1983년, '계몽사 아동 문학상 동극 부문'에,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각각 당선됐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모리시계상, 온다스상 같은 국제 라디오 드라마 콘테스트에 여러 차례 출품된 바 있고 1991년엔 이탈리아 RAI방송과 슬로바키아 국영방송에서 그의 작품을 수입해 가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극작품 20여 편, 라디오 단막극 80여 편, 라디오 연속극 50여 편, TV 다큐 10여 편, 라디오 다큐 30여 편을 집필했고 신문 칼럼도 원고지 4만 매 이상 썼다. 그런데 어디 가서 자신을 작가라고 하면 "진짜 직업이 뭐냐?"고 다시 묻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고 한다. 보통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글쟁이는 생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속초시청 문화계장과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몇 년 일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주된 생업은 방송극작가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방송구성작가가 아닌) 방송극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나 소설가보다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이다. 물론 이 얘기는 젊은 작가가 아니라 베테랑 방송극작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일 것이다. 다수의 소설집을 낸 작가가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수십 편의 작품을 썼어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반면 꾸준하게 활동한 방송극작가는 이들에 비해 수입이 훨씬 나은 편이다.

유럽에서는 라디오 드라마가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도 다수의 라디오 극을 썼다. 유명한 작가들도 라디오 드라마를 먼저 써서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완성된 작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라디오 드라마가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방송극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방송극은 대중들의 반응이 활발해 사람들의 견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극을 재해석하는 사람들, 즉, 연출가, 배우, 음향담당자 등의 전문적인 견해도 살필

수 있다. 방송극의 1차 독자는 연출가와 배우, 제작진인데 이들이 이따금씩 극의 흐름과 대사 등에 대해 의견을 준다. 작가는 이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재도 작가는 젊은 시절에 연출가 등의 견해를 간접으로 느껴 불쾌하게 생각한 적도 있다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들의 의견이 있어 자신의 작품을 다듬을 수 있기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화·풍자극으로 인간 사회 숨겨진 법칙 탐구

최재도 작가는 라디오 방송극을 주로 집필해온 까닭에 젊은 시절부터 속필 작업을 많이 해왔다. 방송극은 공동 작업이기에 자신이 원고를 못 보내면 다들 대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작업을 끝내야 대본이 제본돼 스텝과 성우들에게 배부될 수 있고 본격적인 제작 과정이 시작된다. 연출자의 조율에 따라 음향 담당자, 음악 담당자가 효과음과 음악을 준비하고 성우들은 연습을 시작한다. 녹음실도 사전에 예약해서 한정된 시간동안만 쓸 수밖에 없어 스텝과 성우들은 작가의 작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

글쓰기를 할 때면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쓰기도 하지만 때론 진도가 전혀 안 나갈 때가 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으면 PD의 재촉이 시작된다. PD는 잘 쓴 원고보다 마감시간 엄수를 바라며 작가에게 독촉한다. 독촉은 이내 항의로 바뀌고 이는 작가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얼마나 심적 부담이 심했던지 최재도 작가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작가는 속초에서 작업을 해왔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타고 이후에 원고를 전해 주기 위해 서울까지 직접 갔다. 5공화국 시절에는 방송국 내부에서 검색이 심했는데 바쁠 때엔 이것도 매우 성가신 일이었다. 원고에 박혀 있는 스테이플러 철침 때문에 검색대가 울려 담당 PD를 만나기까지 검문을 세 번씩이나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PD에게 극본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제작 과정에서 원고를 고쳐야 할 때가 있어서 작가는 제작 현장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원래 방송극은 방송 심의를 거쳐야 하나 바쁘면 제작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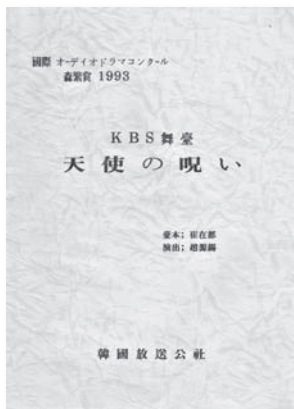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PD가 자체 심의 후 대본의 수정을 요구했다.

라디오 방송극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제작이 쉬울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D는 작가에게 사소한 것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요구할 때가 많다고 한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냥 보여주지만 하면 되는 것을 라디오는 오직 효과음으로 상황을 묘사할 수밖에 없어 라디오 방송극은 까다로운 분야이다. 가령, 공간이 큰지 작은지 확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간의 규모에 맞는 음향 효과를 줄 수 있다.

작가의 희곡 쓰기

희곡은 대사가 많다는 점에서 소설과 대비된다. 그래서 희곡을 쓰는 작업 방식이 소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감정, 사건, 상황, 인물 묘사 등을 대사로 표현해야 한다. 등장인물에게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





모리시게상 출품작

사를 쓸 때 등장인물이 처한 현실을 검토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희곡은 대사의 비중이 높기에 최재도 작가는 대사를 직접 해보면서 글을 쓴다. 한 마디의 대사를 쓰기 위해 여러 번 대사를 되뇌는다. 그리고 표현을 다르게 바꾸어 대사를 다시 말해본다. 머리로만 생각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극을 시연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대사가 안 풀리면 위 대사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다시 작업한다. 위에 있는 대사 하나를 지워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의 대사들을 한참 지워 나간다. 한 줄의 대사도 이렇게 정제와 단련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작가의 작품 세계

최재도 작가는 글쓰기에 있어 자료 수집과 분석을 중시한다. 자신의 작업에 있어 이 일이 전체 과정의 절반쯤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고증과 검증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재도 작가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못지않게 현실에 대한 관찰과 해석, 그리고 일반화를 거치는 과정에도 공을 들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문학적으로 투영해 인간 세상의 구동원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왔다.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학술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작품을 읽으면 사

회 현상의 법칙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고 한다. 그리고 예술은 논리적 사유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술적 감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작가에게 현실 분석과 예술성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작가의 작품 중에는 우화와 풍자극이 적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 작품의 등장인물이 2, 3명 정도이다. <굵은 화살의 엇갈린 지향>은 지렁이와 물고기가 주인공이다. <녹색인형의 독백>은 수류탄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 <꿀벌의 바벨탑, 그 시도에 대한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2명의 대화로 진행된다. <서사지전>은 쥐들에게 인간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백마 혼넛째 날의 아침>은 고장 난 시계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극이다. 이렇듯 작가의 많은 작품이 우화적·풍자적이고 극에는 소수의 화자만 등장한다. 이는 사회 현상의 법칙을 독자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작가가 우화적·풍자적 작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또 있다. 작가의 희곡 중에는 불공정한 세상을 비판하는 작품이 많다. 그런데 직접적인 비판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에 우화적·풍자적으로 표현해 왔다. 작가는 이런 방식이 적대적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 세상을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광호 객원기자 campin@hanmail.net

속초예술

예술가의 작업실 - 서예가 이덕우

서예를 향한 고행의 길

해정서예연구원이 있는 건물 계단으로 들어서자 1층에서부터 고요한 기운이 흘렀다. 서실이 있는 3층까지 오르는 동안 너무 조용해서 그 건물 전체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서실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예에 몰두하고 있었다. 중년부터 노년까지, 무거워 보이는 침묵 속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붓을 들고 누군가의 방문에 아랑곳없이 흰 종이에 시선을 집중했다.

서실의 한쪽 벽에는 ‘하심함소(下心含笑)’라고 적힌 작품이 걸려 있었다. 하심함소(下心含笑)는 ‘마음을 낮추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라’는 말이다.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 나오는 부처의 가르침인데 종교를 초월해서 되새겨 볼 만한 경구이다.

잔잔한 표정으로 방문자를 반기는 이덕우 서예가의 모습은 도록의 사진을 보고 느꼈던 인상과는 사뭇 달랐다. 그 사진에는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조금은 엄격한 서예가의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였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관대했고 자유로운 기질을 소유한 이처럼 느껴졌다. 서예를 하는 분이니 반듯하고 깨끗한 정자체의 글씨 같은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한 막연한 편견이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깨져 버렸다.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 서예

이덕우 원장이 서예를 처음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의 일이다. 처음 시작은 제사에 쓰는 지방을 잘 써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일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어느덧 자신의 본업이 됐다.

그가 서예를 배우는 과정에는 남다른 면이 있다. 이덕우 원장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병원 신세를 2년이나 졌고 그 이후에 마흔이 넘기까지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 걷기가 힘든 상황을 겪었다. 그는 이러한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서예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일가를 이루어 이제

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원장에게 서예를 배운 후 처음 10년 동안은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였다. 그 기간에 그는 강원서예대전에 해마다 꾸준히 출품했는데 입선만 한 번 했다. 주위에서는 글씨가 좋은데 왜 떨어지나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래도록 도전했는데도 수상 실적이 미미하면 낙담하기 쉽지만 그는 서예를 더 잘 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했다. 잠시나마 위기가 있기도 했다. 서예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서예를 관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서예를 다듬을 방안을 찾기 위해 거듭 고심했다.

새로운 스승과의 만남

그러던 어느 날 서예잡지를 보다가 서예가 다민(茶民) 김홍석(金洪碩)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됐고 서울로 그를 찾아갔다. 김홍석은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의 계보를 잇는 서예가이며 김응현의 제자인 조정 권창윤을 스승으로 두고 있다. 이 계보의 중심인물인 여초는 친형인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과 함께 20세기 후반 한국 서예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덕우 원장은 김홍석 서예가에게 그를 찾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주위에서 다들 자신에게 좋은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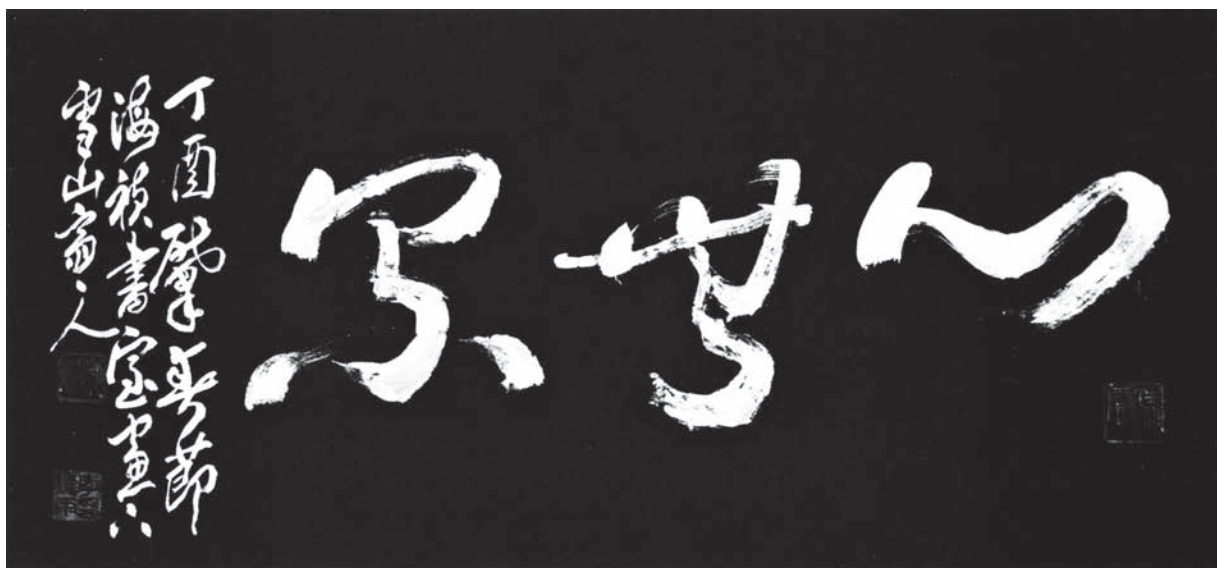
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장차 미래의 스승인 다민 김홍석의 대답은 명쾌했다.

“글씨를 잘 쓰면 떨어트리지 않습니다.”

당시 그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날 이후 이덕우 원장은 서예 공부를 위해 서울로 다니게 됐다.

이 원장은 서울에서 서예에 대한 안목을 넓게 틔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서예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새로운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드디어 전문적인 서예가의 길로 들어섰다.

다민 김홍석에게서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서예에서는 중봉(中鋒)이란 것이 있다. 이는 보통 글씨를 쓸 때 붓대를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예가 김홍석의 생각은 달랐다. 지면에 수직으로 붓대를 세우면 정자체인 해서체 외에는 쓰기가 어렵다. 다양한 서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봉에 대한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모와 붓대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중봉으로 본다면 좀 더 자유로운 붓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중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덕우 원장은 중봉에 대한 스승의 관점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이 이런 관점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를 접할 때가 적지 않다. 그럴 때면 그는 괴로



이덕우 作 心無累 (심무루) - 마음에 얽매임이 없다

운 심정까지 든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중봉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따지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서예는 현대 미술과는 달리 정해진 격식을 중히 여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를 어렵잖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고행의 고개를 넘다

이덕우 원장은 16년의 시간 동안 서울을 오가며 서예를 공부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서울로 갔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두세 번씩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시설과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장거리를 오가며 배움의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노력이 놀라워 보인다.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스승이 있는 서울 합정동까지 가는 길은 그에겐 작은 고행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배움의 길은 쉽지 않았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에서 열 개를 지적받고 속초로 돌아오면 세 개 정도만 기억이 났다고 한다. 서울을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스승의 가르침이 기억나지 않으면 고통스런 반추의 과정이 계속됐다. 그럴 때면 너무 괴로워 붓을 놓고 싶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이겨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서예

서울에서의 배움은 새로운 결과를 낳았다. 서울로 가기 시작한 이듬해부터 이덕우 원장은 강원서예대전을 비롯한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서예대전에 하나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수백 장을 다시 쓰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다. 자정까지 글을 쓰거나 새벽에 나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붓을 들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당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예에 대한 열정이나 배움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제가 서예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것은 오기였습

니다.”

서예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도전한 공모전에서 성적이 저조했으니 어쩌면 오기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예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면 그의 노력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덕우 원장은 요즘도 하루에 여덟 시간 정도는 붓으로 글을 쓴다. 이미 오래 전에 스승인 김홍석 서예가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작품에 대해 묻자 그는 ‘겸손(謙遜)’이란 작품을 얘기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글을 썼다고 한다. 해정서예연구원의 벽에 걸린 ‘하심함소(下心含笑 - 마음을 낮추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다)’라는 글과 통하는 작품이다.

시간을 거슬러 건강을 되찾다

그의 삶을 짚어보면 서예는 그의 삶을 변화시킨 너무도 중요한 매개였다. 취미로 시작한 서예가 어느새



그의 본업이 됐다. 그리고 서예는 그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서예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끊었다. 정조 임금이나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처럼 애연가인 서예가가 있는 것을 보면 담배가 서예와 꼭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덕우 원장은 서예를 잘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담배를 끊었다.

그가 서예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오간 것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편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오간 것은 운동을 한 셈이다. 그리고 서예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다진 것도 그의 건강에 주효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 이덕우 원장은 20대에 큰 사고를 겪은 후 한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70대가 다 된 지금은 오히려 가시적으로도 더 건강해졌다. 보통 그 정도의 나이에는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 게 다반사이지만 그에겐 현재 장복하는 약이 별달리 없다. 걷는 게 약간 불편할 뿐 비슷한 연배의 누구보다도 더 젊고 건강하다. 그를 실제로 마주 대하고 있으면 운동선수처럼 건강해 보인다.

물론 그의 건강에는 서예뿐 아니라 다른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 시절에는 재활운동을 열심히 했고 나이가 들고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3년 전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 인해 본격적인 운동은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는 아령 10kg짜리 두 개를 양 손에 쥐고 하루에 200개씩 들어 올렸다. 그리고 1주일에 3번은 등산을 했다.

서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성과를 내어 온 것도 그가 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동력으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운동 역시 결국에는 서예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가 되다

한문 서예의 글씨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해서, 행서, 초서, 예서, 전서가 그것이다. 이덕우 원장

에 따르면 하나의 글씨체는 적어도 10년의 시간을 들여야 잘 쓸 수 있다. 하나의 글씨체에 있어 완성의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글씨체를 배우는 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이들 글씨체를 몇 가지만 제대로 쓰려고 해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덕우 원장은 요즘 여러 서체를 너무 급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글씨는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지요. 기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만의 글씨를 쓰기 힘들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천천히 나아가야 하지요.”

서예는 글을 보고 지식을 암기하듯 배우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기법을 배우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만의 개성이 더해지려면 더 많은 연습, 어쩌면 부단한 수행(修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해정 이덕우 원장도 지나온 길이다. 그는 그 길을 걸어오며 서예만을 갖고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예술은 주관의 영역이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가 많은 이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도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세계를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한다. 이덕우 서예가도 이에 해당한다. 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가며 서예를 연마했고 우리 지역의 많은 이들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꼽히고 있다.

그는 나이를 거슬러 건강을 되찾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쩌면 그는 서예를 통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의 지향을 담은 더 많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서예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 해정(海禎)의 작품을 감상할 때 그의 인생이 그의 글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 보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이광호 객원기자 campin@hanmail.net

속초예술

예술가의 작업실 - 속초시립풍물단 전성호 악장

사진학도, 국악인 되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필름카메라 한 대를 선물했다. 사진 촬영은 그 소년의 취미가 됐고 이후 그 소년은 대학 전공으로 사진을 선택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사진가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다.

이 신입생은 자신이 보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아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탈춤동아리를 촬영했는데 탈춤을 추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이 학생은 그 모습에 이끌려 탈춤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

낮엔 탈춤동아리 밤엔 사진과 씨름

그가 대학을 다닌 1990년대 초반은 캠퍼스가 어수선했다. 등록금 투쟁과 학원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그가 있던 탈춤동아리는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대학 당국은 탈춤동아리의 활동에 갖은 제재를 가했다. 학생들을 면담하고 부모 소환으로 압박했다. 이에 따라 탈춤동아리는 해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 1학년 학생은 굴하지 않았다. 망해가던 탈춤동아리를 살리기 위해 독한 마음으로 버텼다. 사진과 교수들은 그의 과제물에 최하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정부와 대학 당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췄다.

오기가 발동했다. 대학생 전성호는 하나의 사진 과제물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시 제출했다. 교수들이 사진 과제물에 최하점수를 준 것은 오히려 약이 됐다. 사진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시련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단련시킨 것이다.

그리고 탈춤동아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낮 동안은 탈춤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밤이면 사진과 씨름했다. 이때 같은 과 친구들이 큰 힘이 됐다. 친구들은 자신의 장비 사용 시간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당시 그에게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술 마실 시간도 없었고 여자 친구를 사귄 엄두도 못 냈다. 그의 대학 생활은 내내 탈춤과 사진 두 가지가 지배하던 시절

이었다.

“전 너무 바빠 쉽게 다가오기 힘든 사람이었죠.”

전성호 악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렇게 말했다.

대학생 전성호는 스러져가는 동아리를 살리기 위해 탈춤 전문성을 다지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대학의 탈춤동아리가 함께 삼척대학교에서 봉산탈춤 이수과정을 운영했는데 그는 자신이 다닌 대학에서 혼자서 참여해 봉산탈춤 전 과정을 익혔다. 다른 이들이 몇 가지 역할만 익혔지만 그는 억척스럽게 봉산탈춤에 몰입해 모든 역할과 공연의 세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는 후배들에게 봉산탈춤 전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갯마당’ 들어가 국악을 전업으로 선택

전성호 악장은 사회에 나와서 사진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한편으로는 국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국악모임 ‘갯마당’에 전문 연희단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그 이전까지 ‘갯마당’의 구성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 비로소 국악을 전업으로 선택했다. 전성호 악장도 마찬가지였다. 당시까지 동아리 성격을 지녔던 ‘갯마당’이 점차 전문 국악인 단체로 발전해 나갔다.

국악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 하나의 장단을 함께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즐거움 못지않게 자신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됐다. 국악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찾아 나섰고 그 와중에 호남에서 본 중학생들의 공연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 저런 음악도 있었구나. 내가 중학생들보다도 못하는구나.’

어린 학생들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치고, 돌면서도 치는데 연주마저 훌륭했다. 그 이전까지 강원도에서 가장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중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자신이 강원도 산골 우물 안 개구리라고 느끼게 됐다. 자신의 국악 인생에 있어 정신이 붕괴된 첫 번째 경험이었다. 그때서부터 죽어라 연습을 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바로 뺏어버릴 정도로 장단 하나에도 혼신을

기울였다. 연희단의 구성원 전성호, 주동진, 박치영, 김태희, 김동연 5인은 공부와 강연, 연습과 공연으로 이어지는 삶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바쳤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한 스승으로부터 사사할 때의 일이다. 그 스승이 전성호 악장에게 “너는 아직도 ‘덩’을 못 친다”고 말했다. 장구 연주에서 기본이 ‘덩쿵따’인데 여기에서 ‘덩’을 못 친다는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였다. 이것이 국악에 대한 그의 인식이 무너진 두 번째 경험이다. 그는 그날 이후 스승의 소리를 정교하게 분석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두드림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고자 했다.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소리를 다듬기 위해 집중했다. 아마도 국악을 모르는 이들은 결코 알아채기 힘든 소리를 내기 위해 무던히 연습을 반복했다.

세 번째 충격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찾아왔다. 그 이전에는 악기만으로 소리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악기를 치는 자신의 몸놀림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악기를 친 후 팔과 몸의 동작을 달리 하면 소리는 다른 파장으로 바뀌어 다양하게 울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악기의 연주자이자 동시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그때 그는 과거에 스승들이 악기 연주 시에 몸동작을 어떻게 하라고 한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소리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정립했다. “그때 소리의 움직임이 알게 됐지요”라며 전성호 악장은 성취감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국악 대중화 위해 퓨전음악·창작극 등 다양한 시도

가끔씩 사람들이 전성호 악장에게 몇 달을 연습하면 장구 연주를 잘할 수 있게 되냐고 물을 때가 있다. 30년 가까이 장구를 연주해온 그도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한다. 자신이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그러한 판단이 오만한 자세였음을 여러 번 깨쳤기에 몇 달의 연습만으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풍물놀이는 신명나게 이뤄진다. 연주자들의 모습도 흥겹다.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

면서 풍물 연주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기까지 쉽지 않은 배움의 과정이 있었다.

“편하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장구, 북, 팽과리 같은 타악 연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10년을 한 사람과 20년을 한 사람의 연주를 구분할 수 있다. 연주자가 나이가 들면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된다. 같은 장단을 적게 두드리고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덩’ 하나로도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국악 비중 낮아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국악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예전에 국악은 우리의 삶이었다. 지신밟기, 굿, 장례, 마을잔치 등이 있을 때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어느새 이런 일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오래도록 이어온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국악의 비중은 낮다. 김대중 정부 이후 초·중등 교육에서 국악 교육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10년 전 쯤 다시 양악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우리 음악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후자들은 풍물소리를 시끄럽다고 얘기한다. 어떤 이들은 농악이 미신과 연관된 것이라면서 배척한다. 전성호 악장은 풍물단 복장을 한 자신을 향해 재수가 없다면서 소금을 던지는 사람도 봤다고 한다.

“참 재밌는 일이지요? 미신이라 욕하면서 정작 소금을 던지는 우리의 민속을 따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국악을 멀게 느끼는 것은 국악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을 일이 거의 없으니 커서도 국악을 친숙하게 여기기 힘들다.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락을 들려주면 이게 춤을 추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박수는 언제 쳐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어르신들이 우리의 전통 음악에 바로 춤을 추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이다.

이런 상황에선 국악의 발전이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국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 국악인들도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해도 어차피 이를 구분하는 ‘귀’가 없으니 굳이 실력을 갈고 닦을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전통음악으로 극 만들어 공연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국악을 접하게 해야 한다. 전성호 악장은 퓨전 음악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국악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면 퓨전을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퓨전은 눈요깃거리로 흘러서 제대로 된 연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신의 연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전성호 악장은 퓨전을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드림을 배운 적도 있다.

전성호 악장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퓨전 음악 외에도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어린이날과 설악문화제 때는 키다리풍물 공연을 펼친다. 키다리 피에로처럼 키를 높여주는 장비를 다리에 착용하고 풍물공연을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다.

속초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에서는 전통음악으로 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속초시립풍물단의 창작공연 〈만선〉을 선보였다. 이는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이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뱃사람들의 노동요와 국악으로 하나의 극을 구성, 음악 공연만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작품에서는 어민이 출항해서 바다와 싸우며 만선으로 돌아와 기쁨의 축제를 하기까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폭풍우 치는 소리, 고기 잡기, 만선의 모습 등 여러 장면을 보여주며 장면별로 의상도 달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017년 정기연주회에서 공연한 <청사초롱>은 6·25와 분단,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대사와 연기가 있고 그 가운데 무용 공연도 있어 다채롭다. 여러 요소가 결합한 공연이라 아직은 손봐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속초의 특색을 담은 공연이라 차후에 이어지는 공연이 기대되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연주하면서 음악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고증을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복원하고 구현하는 일은 전성호 악장에게 줄곧 큰 관심사였다. 그는 ‘갯마당’ 시절, 도문농요, 도리원농악 등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뱃사람 민요처럼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고증과 구현이 잘 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그는 20대 초



반부터 문화재 복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성호 악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 음악 전수자이기도 하다. 태평무 음악을 배우기 위해 3년 동안 서울로 공부하러 다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단오굿 음악은 10년 동안 공부했다. 북청사자놀음의 구현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사자놀음에서 ‘앞사자’라는 비중 있는 역을 맡고 있다.

시각적 리듬을 청각으로 해석

전성호 악장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소리에 민감하다.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들

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빗소리, 천둥소리, 자동차가 내는 소리,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장단처럼 들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는 소리가 그에겐 음악이 되고,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소음도 그에겐 흥겨운 박자가 된다.

자연물이 만들어내는 무늬나 선의 흐름도 유심히 살핀다. 전성호 악장은 나뭇결, 산세의 흐름, 파도가 만들어내는 선 등에서 리듬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시각적 리듬을 청각으로 해석하려는 버릇이 있다. 또한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어서인지 자신이 본 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하고 이를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할 때도 있다.

전성호 악장이 보기엔 세상 많은 것들에 강약의 장단이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연주에서도 이 강약의 흐름을 구현하려고 한다. 무작정 세계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며 리듬감을 부여한다.

관객이 많을 때, 호응이 좋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음악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성호 악장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특히 국악을 아는 ‘귀명창’들이 많으면 부담이 되고 긴장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풍물 연주는 신명나는 일이다. 그런데 혼자서 칠 때는 신명을 잘 느낄 수가 없다. 연주자들이 함께할 때, 특히 악기로 하는 대화가 잘 되어 합이 잘 맞을 때 더욱 큰 희열을 느낀다.

“우리는 연주를 하면서 음악으로 이야기를 나누지요.”

한 연주자가 ‘이런 음악성을 너도 아는가’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다른 연주자들이 ‘그렇지, 나도 알지’ 하며 악기로 대답한다. 이럴 때 연주자들은 함께 큰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이런 합은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악기로 대화를 나누려면 연주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평소의 연습이 중요하다. 희열과 신명은 부단한 노력과 합심 속에서 탄생한다.

악기와 카메라 들고 세계여행 꿈

전성호 악장은 사진가로서의 길을 완전히 접은 것 같

지는 않다. 물론 예전처럼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 별도로 긴 시간을 할애하거나 하진 않는다. 집에 마련해둔 사진 작업실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풍물단에 필요한 사진을 위해서는 그가 직접 나선다. 풍물단의 홍보물에 실리는 사진은 그가 찍는다. 그리고 풍물단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속초시립박물관이 홍보용 사진을 필요로 하면 그가 촬영하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그의 인생에서 사진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갯마당’ 시절에도 그는 ‘갯마당’ 팸플릿 사진을 찍었고 시간이 날 때면 속초 바닷가도 카메라에 많이 담았다. 그리고 작품 사진은 아니어도 기록 사진을 꾸준히 찍어오고 있다.

그는 앞으로 단오굿을 좀 더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굿에 대해 더욱 심도 깊게 전문성을 쌓으려고 한다. 단지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열정을 바칠 생각인 것이다. 또한 사자놀음과 도리원농악의 지방문화재 지정에도 그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전성호 악장은 한편으론 언젠가 악기와 카메라를 들고 세계여행을 하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가족여행도 생각하고 있지만 혼자서 가는 여행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 여행을 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연주를 듣고 자신의 연주도 들려주려고 한다. 여행의 모든 과정은 그의 카메라 속에 하나하나 담을 생각이다.

여행지에서 그 나라의 음악가와 교류하는 것도 그의 희망사항이다. 이국에서의 이러한 교류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전기, 그러니까 네 번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연주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전성호 악장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성호 악장, 그는 아직 40대이다. 그의 소박하지만 원대할 수 있는 희망이 실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이광호 객원기자 campin@hanmail.net

속초예술

예술가의 작업실 - 임흥빈 사진작가

설악산 전문 사진가 된 속초시 공무원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은 오래도록 예술의 모티브나 소재가 돼왔다. 인간의 손길로는 만들어내기 힘든 아름다움과 패턴, 규칙은 인간의 감각을 압도하여 감수성을 자극하고 이는 예술 작품의 탄생으로 이어지곤 한다.

우리 지역의 설악산도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설악산을 소재로 한 문학과 미술은 예로부터 적지 않았다. 오늘의 주인공 임흥빈 작가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가이다.

임흥빈 작가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게 된 것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애초에는 사진이란 매체에 대한 호기심보다 설악산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마흔을 넘겼을 때에 설악산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그에게 설악산은 그저 가까이 존재하는 지역의 명산일 뿐이었다.

임 작가가 2015년에 출간한 사진집 <설악 : 언제나 그대 품속을 그리며>에는 그가 설악산에서 느꼈던 경이로운 마음이 잘 담겨 있다.

“산을 다니면서 초록빛 물감이 번지기 시작하고 향기로움 물씬 풍기는 파스한 봄날 마른 땅에서 새움이 트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기만 하다. 없는 듯이 자취를 감추었다가 어느새 제철을 알아보고 물감을 푸는 것이다.”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들이 그에게 특별하게 다가왔고 그런 남다른 느낌이 그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었다.



설악산 알리기 위해 사진 선택

임흥빈 작가는 40년째 속초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00년대 초에 시청 산악회 활동을 시작하며 매주 설악산을 올랐다. 그렇게 자주 가게 되니 설악산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멀리서 바라보던 산과 직접 힘들게 걸으며 느끼는 산은 천지차이였다. 산속에서 바라본 설악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했고 각 시기별로 특징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설악산을 세계의 이름 있는 산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산들보다 더 멋진 산이란 생각에 이러한 설악산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

게 됐다고 한다.

작가는 지금까지 살면서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소백산 같은 우리의 명산뿐 아니라 일본 히다산맥, 중국 황산, 우령산맥,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 같은 아시아의 산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 있는 유럽의 산들도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그가 가본 많은 산들 중에서도 그는 설악산이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은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담긴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폭넓은 견문들 속에 내린 결론이라 웬지 믿어버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작가는 사람들에게 설악산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다 사진을 선택하게 된다. 작가가 산악회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뒤였다. 중년의 나이에 그는 새로운 취미를 자신의 삶에 더했다. 그러나 이 취미는 얼마 안 가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필름 카메라로 시작했다. 요즘이야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화질이 많이 개선돼 일부러 필름

카메라를 찾는 경우가 잘 없지만, 그가 사진을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마미야 645'를 구입해 사진관을 하는 친구에게서 기본적인 사진 지식을 배웠고 독학으로 하나씩 깨쳐 나갔다. 그의 새로운 공부는 진도가 빨랐고 이내 '청출어람'이 됐다.

그런데 필름으로 사진 찍는 일은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자신이 사진을 제대로 찍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 채로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필름을 카메라에 제대로 감지 못해 실컷 찍고도 한 장도 건지지 못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5년 정도 필름 카메라로 계속 작업을 했고 2009년에야 비로소 디지털로 옮겨가게 됐다.

‘제16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

본격적으로 설악산 사진을 찍은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산악사진을 잘 찍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들 같으면 아직도 초보자 소리를 들을 때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





다. 2009년 1월에는 한국산악사진가협회에 가입해서 산악 사진가들과 교류하며 전문작가로서의 입지도 구축해나갔다. 공모전 참여도 활발히 해서 ‘산사진공모전’ 등에서 수상경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의 공모전 참가는 요즘도 계속 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주최한 ‘제16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서 ‘공룡능선 노을빛’이란 작품이 대상작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 관공서에서 볼 수 있다. 속초시의회, 속초해양경찰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경찰서 등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다. 속초시립도서관 3층 북도에는 그의 사진 작품 여러 장이 상시적으로 전시돼 있어 그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품었던 그의 바람대로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뤄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설악산이라는 거대한 작업 공간

어떤 이들은 산 사진을 큰 감흥 없이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사진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 산에 올라야 한다. 등

산은 가벼운 차림의 맨몸으로 작은 사진기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아니다. 사진작가의 장비에 산악인의 짐이 더해진다. 카메라에 렌즈 서너 개, 배터리도 여러 개, 삼각대는 필수이다. 임흥빈 작가는 산에서 보통 2박 3일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물과 식량이 있어야 하고 대피소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버너와 식기도 챙겨야 한다. 갑자기 비가 내릴지 모르니 우의도 필요하다. 임 작가는 이 많은 것들이 담긴 큰 가방을 메고 네다섯 시간 동안 산을 오른다.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은 쉽게 가까운 곳으로 한나절 갔다 오면 되지 왜 높은 곳까지 가서 며칠간 고생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정도 머무는 것은 임 작가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원하는 촬영 조건이 갖춰지도록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가버린다.

설악산 촬영에 있어서는 날씨가 중요하다. 외설악의 경우 강수량과 적설량이 많고 기후 변화가 심하기에 기상예보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흥빈 작가는 기상을 매일 확인한다. 예보를 볼 때면 구름의 흐름을 알기 위해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않는 위성사진도 거르지 않고 본다. 구름 상태를 보고서 보통 산행 며칠 전에 출사일자를 정하는데 기상이 갑자기 바뀌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된다면 싶으면 서둘러 산에 오를 때도 있다.

“설악산 매력은 봉우리와 능선”

작가는 대개 밤 11시에 혼자서 등산을 시작한다. 캄캄한 밤을 헤치고 걸어 올라가면 외롭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작가는 그것보다는 자신이 찍을 광경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긴다. 고요한 산행에서 바람과 냇물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는 일상에 지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러나 아무리 즐겁게 산행을 한다고 해도 한밤의 산행에서는 돌발적인 일이 생기기도 한다. 언젠가 산길을 걷다가 고라니가 작가에게 부딪친 적이 있어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

정상에 오르면 보통 새벽 세 시쯤이다.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이 오면 잠깐 동안 셔터를 누른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빛이 안 들어오면 저녁을 기다린다. 예보가 틀렸거나 운이 나쁘면 저녁에도 빛이 좋지 않아 노을빛마저 못 찍게 된다. 초창기에 임 작가는 원하는 사진을 못 찍고 내려온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분석했고 차츰 작가가 바라던 장면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산 사진은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에 까다롭다. 봄날에 하늘과 산, 신록과 운해, 그리고 꽃을 하나의 사진에 담으려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고 나무와 꽃도 싱싱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획한 사진은 탄생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풍경도 변하기에 시기마다 하나의 조건이 어긋나면 다음해를 기약해야 한다. 저 멀리 봉우리를 배경으로 근경의 진달래를 바라는 대로 담지 못하면 1년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작가는 여러 가지 대상을 찍기는 하지만 주로 봉우리와 능선 사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작가만의 이유가 있다. 작가는 한때 소나무처럼 설악산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설악산이 가진 매력은 봉우리와 능선에서 잘 드러난다는 생각을 한 이후 이런 사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봉우리와 능선을 자신의 전문분야로 삼은 것이다. 물론 작가는 산에서 여러 대상을 찍기는 한다. 하지만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은 주로 능선과 봉우리를 담은 사진들이다.

시청에서 일하는 임흥빈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기후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 하루 휴가를 낸다. 그의 출사 일정이 보통 2박 3일이지만 평일 출사여도 하루 휴가만으로 충분하다. 휴가일 전날 밤 11시에 산에 올라서 휴가일 다음날 새벽에 하산해 출근을 한다.

하산하는 날에 기상 조건이 좋을 것으로 보이면 사진을 더 찍고 싶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작가가 원하는 사진을 찍은 날에는 발걸음이 가벼워 대청봉에서 오색까지 무거운 장비를 들고 두 시간도 안 돼 내려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니 피곤함은 있지만 생산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일로 바쁘면 날씨가 좋아도 출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사진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든다. 아마도 이런 열망은 작가가 좋은 작품을 찍는 원동력일 것이다.

내적 동기가 예술의 길로 인도

많은 이들이 예술이란 어릴 적부터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며 생업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임흥빈 작가는 사람들에게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진이라는 취미를 택했고 그 취미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의 분명한 목적이 그가 그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어쩌면 예술은 기교보다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적 동기는 평범한 사람도 예술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임흥빈 작가는 이런 유형의 인물로서 앞으로 더욱 완성된 전형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광호 객원기자 campin@hanmail.net

속초예술

지역문인의 시(詩)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김 종 현 | 시인, 속초문인협회 회원



I. 들어가는 말

속초문화원의 ‘청호동과 갯배, 실향민의 삶을 다룬 문학작품 해설’이라는 주제를 받았다. 원고를 쓰기 위해 우선 청호동과 갯배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시(詩)작품을 찾기 시작했다. 의외였다.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이 생각보다 매우 적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나왔다 청호동에 정착한 피난민 1세대의 삶을 그려낸 실향민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단 문학’과 ‘통일문학’에 관한 작품은 상당수가 있지만, 청호동과 갯배를 소재로 실향과 망향의 이미지를 소재로 형상화 한 작품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필자가 본 소고를 작성하기 위해 청호동과 갯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바, 대부분의 자료가 역사적, 지형학적, 향토자료학적 측면의 조사자료 이었다. 문화예술 자료로는 엄상빈 사진작가의 사진집 ‘속초 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는 길’과 ‘아바이마을 사람들’이 출판되었으며, 문학적 자료로 피난민의 삶을 소재로 실향과 망향을 이야기하는 작품은 많이 있으나, 청호동에 관한 지역문인의 시 작품은 20여 편,

갯배에 관한 시 작품은 10여 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지역의 채재순 시인이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라는 향토자료 속에 “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속초 실향민 문학’을 개관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소고는 지역문인의 청호동에 관한 작품 20여 편과 갯배에 관한 시 10여 편을 중심으로 지역문인들의 눈에 비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청호동의 역사에 관한 소고

먼저 청호동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속초문화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호동은 속초시의 최동단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청호호를 두고 남에서 북으로 길게 뻗은 형국을 하고 있다. 청호호는 육지로 굽이쳐 들어 온 바닷물이 퇴적층에 막혀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석호(潟湖)다. 석호와 바다와의 경계는 그 사이에 퇴적된 모래사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청호호도 동해 바다와 모래사장을 사이에 두고 막혀



© 사진작가 장규호

있었다. 이를 사구(砂丘)라고 하는데, 청호동은 바로 이 사구, 즉 모래밭에 생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형성은 피난민 1세대의 설명에 의하면, 1.4 후퇴 때 내려왔다가 국군의 북진과 시기를 같이하여 귀향하다가 잠시 짐을 푼 곳이 바로 청호동이라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북진하던 국군이 중공군의 개입에 막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38선을 넘은 것이 51년 3월이므로, 마을의 형성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속초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속초 및 주변으로 이동한 피난민의 규모는 48,722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배를 이용하여 이동한 사람들은 주로 속초항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육로를 통해 이동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재 종합 공설운동장 뒤편인 학사평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청호동의 옛 터는 여러모로 거주지역이 되기는 힘들다. 모래사장인 탓에 지반이 단단하지도 않고,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탓에 식수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까? 당시 청호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출신지를 보면 함경남도가 92%로 절대

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반 이상이 어업을 생계로 하여 생활을 유지하였다.

이들이 속초 정착 후에도 어업을 생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고향에서 어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어업 관련 기술에 숙련된 이들이 많았고 전쟁 시 피난 수단으로 배를 이용 한 이들이 많았기에 보유한 선박과 인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피난민들로, 이곳을 종전 후 귀향을 위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임시로 정착한 상황이었다. 북에서 남하할 때 청호동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배를 이용하여 피난을 나왔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배를 정박 하기 쉬운 지역이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적당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청초호의 사구는 빈 터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갈등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휴전선으로 남북이 가로 막히자 모래사장의 임시 정착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면서 부터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피난민들은 이곳에 친척이 있어 이주하거나,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

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하는 등, 여러 계기로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섰고, 동향사람을 찾아 몰려 든 이들이 정착하면서 신평마을, 정평마을, 흥원마을, 단천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또한 청호동은 ‘아바이 마을’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사전적으로 ‘아바이’라는 말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방언으로 경상북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일대에서 사용되며 지역마다 어감은 조금씩 다르다. 과거 청호동 주민들 중에서는 함경남도 북청군 사람들이 주로 ‘아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바이 마을’이라는 단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단어의 연원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아바이 마을’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자기정체성의 자각이다. ‘아바이’라는 것은 전쟁 피난민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마을’이란 현실적 기반을 의미한다. 즉 청호동을 대변하는 이미지는 ‘실향과 망향’이다. 이 두 가지는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의 키워드다.

청호동의 인구가 정점을 이르던 때가 1966년경이다. 이후 청호동의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1980년경에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갔다가 이후로 다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 서게 된다. 청호동 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어획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주지한 자연 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청호동 생활환경의 변화나 속초시의 팽창, 정착민 2세 및 3세들의 외부 진출 등도 청호동의 어업 위축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을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관광지화되어가는 분위기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신수로 개설과 금강대교, 설악대교가 개통되면서 두개의 청호동으로 분리된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III. 지역문인의 시 속에 나타난 청호동의 이미지

지역 문인 중 실향민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한 시인은 단연 이상국 시인과 김춘만 시인이다.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 갯배와 함께 그 마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노래하였다. 반면 김춘

만 시인은 본인이 태어난 고성 공현진에 뿌리내린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향과 망향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중 지역문인들이 노래한 20여 편의 시 작품을 통해 청호동의 형상화 된 이미지를 찾아보자.

1. 피난민 1세대들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청호동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명확히하기 위해 2010년에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 김민정 교수가 ‘가족과 문학’ 제 26집 3호에 발표한 ‘복 없으니 고생이지 : 한국사회의 변화와 ‘피난민 ‘장씨의 생애 이야기’에 인용된 논문 일부를 요약해 옮겨 본다.

“전쟁 때문에 집단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피난민은 ‘국내 난민이주자’라는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화와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 난민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디아스포라의 개념 규정은 애매한데, 가장 고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샤프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아스포라는 첫째, 하나의 중심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주변장소로 분산되며, 둘째, 원고국에 대한 기억과 신화를 유지해야 하고, 셋째, 자신이 방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럴 수 없다고 믿으며, 넷째, 고국은 때가 되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라 여기며, 다섯째, 고국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여섯째, 이들의 집단 의식과 연대는 고국과 지속되는 관계로 정의된다. 그런데 김귀옥에 의하면 ‘월남민’들은 고전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로 보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귀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유대인 집단을 설명하던 디아스포라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남한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 한인과도 다르며, 뚜렷하게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며, 민족 공동체 의식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퇴렐리안(Tölölian)의 견해처럼,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주자와 국외자, 난민, 이주노동자, 추방커뮤니티, 재외 커뮤니티, 종족 커뮤니티와 같은 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 영역을 일컫는다.”

지역 문인들의 청호동에 관한 시 몇 편을 살펴보자.

청호동 방파제 너머 떠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잠들고/ 흥남이나 청
진물이 속초 물과 쓰린 속으로/

새섬 근처에서 캄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 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혈떡거리며
짐승처럼 날다 바다의 벽에 / 다치고 돌아와 죽은 듯이 잠
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새섬을 사람들은 모른다./ 청호동 사
람들의 동해 밑바닥 국적 없는 고기를 잡거나/ 모래위에
집짓고 아이들을 낳는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건 무서
운 일이다./

나룻배 끌기엔 흐르는 땅 모래 꺼 앉고 아바이들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이남 물과 이북 물이/ 야 이 간나이
새끼 마이 늙었구만 하며/ 공개적으로 역세게 무너지면/
동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이고/ 분명
히 객지여야 한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청호동 사람들의/ 흐르는 섬이 있다
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청호동 새섬 (이상국)〉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
지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끝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 놓은 배들이 빠져거린다.//

〈떠도는 청호동 (이상국)〉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은 섬이 아니되 섬이라고 말한다. 즉
지정학적으로는 섬이 아니지만 피난민 1 세대들이 뿌리 내리
지 못하고 언제든 떠날려고 마음먹고 있는 청호동 모래밭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고, ‘이남 물과 이북물이 공개적으로 역세게 무너지면 동
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 인 곳이다. 그러
나 여기서 섬은 또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바로 피난민
들이 가지고 있는 ‘단절’에 대한 함의적 단어이기도 하다. 고

향과 고향에 담긴 추억,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피붙이와 일가
친척들, 생업과 예전에 가졌던 것을 찾지 못하는 상실감 등
이 가져다주는 단절감을 시인은 갈 수 있으되, 쉽게 갈 수 있
는 곳은 아닌 ‘섬’으로 1세대 피난민의 디아스포라를 보여주
고 있다.

새는 이곳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두 눈과 두 발을 모두 걷고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 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청호동 가는 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호동 일기 3 (김영준)〉

햇발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날에도/ 캄캄한 대낮이
걸려드는 청호동 그물//

핏발선 광녀의 목청이/ 와-와 울며 걸려도/ 소금에 절여
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비릿한 바람으로 물려
와 안겨도/ 어제 놓아준 멍태가/

청상과부로 늙고 있는 고향을 몰고 와/ 저녁노을로 걸리
고//

청초호 갈매기 떼/ 속초 하늘을 끼룩이는데/ 설달 하현달
을 건져 올리는/ 청호동 그물. //

〈청호동 그물 (채재순)〉

열 개의 다리가 있는 일 열/ 허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질
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청호동에 모여 나부끼고 있다//

소금기 묻은 바람 불어와/ 온 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
면/

죄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먹물 뿜어내던 그 바다 돌아갈 순 없을까” //

목이 아프도록/ 청호동 하늘의 별을 세며/ 오징어들은 밤
이슬 맞고 있다//

북쪽 고향바다 그리워/ 줄에 매달린 채/ 떨어질래야 떨어
질 수 없는 인연으로

팔에 팔을 걸치고/ 바다보다 속 깊은 청호동 사람들이 바
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징어 덩장이 있는 청호동 (권정남)〉

이상국 시인이 ‘섬’으로 디아스포라를 표현 했다면, 김영준



황포돛배(사진제공 속초문화원)

시인은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통해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청초호 물속에 가라앉은 불빛으로 표현했고, 채재순 시인은 그들이 깔고 앉은 청호동이 ‘소금에 절여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늘 떠남의 열망을 가진 그들이 따스하게 등 붙일 곳이 아님을 이야기 한다. 권정남 시인은 청호동은 그들에게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먹물 뿜어내던 그 바다’가 아니라 ‘소금기 묻은 바람 불어와 온 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면 죄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싶은 대기소일 뿐이었다.

2. 피난민 1세대들의 희망과 좌절의 땅 청호동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호동은 피난민 1세들에게겐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대기소요, 피난처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집을 짓고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래밭위에 임시로 움막을 짓고, 집 앞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며 귀와 눈을 북쪽 땅을 향해 크게 열어 두고 살아갔다.

그날 단천에서/ 뱃길로 사흘 객지 속초에 와/ 나무를 심는 일은 단천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청호동 모랫바닥에 엎드렸다가/ 한두 달이면 떠

나야 할 객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욕하는 일이다/ 철공소집 변돈도 받아야 하고/

뺨뿔네 콩 멍석 두 뉘도 돌려줘야 하는/ 단천이 보이지 않는다./

뱃길 사흘 머나먼 단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청호동 사람들의 단천은/

단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엔/ 아프리카나 마찬가지로 임을/청호동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지만/

아직 청호동 모랫바닥에 나무를 심는 일은/ 뱃길 사흘 단천을 아주 버리는 일이다.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일은 (이상국)〉

그물이나 작살로는 잡을 수 없는 안개 때문에/ 원산이 보이지 않는다.

원산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서울, /안개 속에 넘어진 아바이들은 모래바닥에 못을 박으며/ 감감한 소주만 마신다./ 안개가 청진을 먹고 원산 진남포를 먹어 치우고/

목포 인천을 먹으며 영을 넘어와/ 뻘뻘스럽게 청호동 여자와 동침하는 밤에도/

인천 등대와 같은 속초 무적霧笛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 움 속에 몸을 숨기
고/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안개는 속삭인다./

전라도나 함경도는 지구에 없다고/ 먹어 치우는 안개 잡
으려고 작살이나 그물 퍼 들고/
넘어진 아바이들 기 쓰다 잠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
는 청호동.

〈청호동 안개 (이상국)〉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모래를 끌지 못한다//
새들은 새섬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주둥이 가득 거품
만 물고 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술잔을 달래고 있을 때/ 고인
물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파도가
오늘도 다만 침묵하고 있다//
아픔이라고 하자/ 허연 생채기 같은/ 우리들 끊겨진 길
이라 하자//

아침과 아침의 말을 고이 보내고 난 다음/ 청호동 네 굳
은 어깨 너머/
기침 같은 소주만 보이고//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

〈청호동 일기 1 (김영준)〉

그런 청호동 아바이들의 삶을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에 나
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육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 사흘이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단천을 두
고, 돌아가서 헤어진 이웃들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있는 청
호동 아바이들에게 놀러 살 목적으로 청호동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일은 고향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은 늘 틈이 있어 ‘시간과 환경’이라는 청호동 안개는 ‘청
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기고 지
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속삭여준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에 ‘넘어진 아바이들 기 쓰다 잠들면 지워
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으로 각인된다.

김영준 시인도 그 시절 청호동을 아바이들의 삶을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
지 않는다’라고 노래한다. 주둥이 가득 거품을 물고 새섬을

갔다 와도 끊겨진 길은 다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청호동 아바이들은 서서히 좌절과 체념을 배운다.

청호동 일원에 마른 바람이 한 때 지난다/ 서서히 파도치
기 시작하던 청호동의 좁은 어깨
펼럭이는 판자지붕/ 동에서 서로 바빠 움직이는 비릿한
손놀림//

망각의 연기로 꺼져가는/ 청호동 골목골목의 원혼들//
청호동 골목길에는 파도가 혀를 내밀다가도/ 아주 속속들
이 사리를 틀었다//

청호동 옷 소매 속/ 부엌 아궁이까지 날 세운 바람은 자리
를 굳히더라//

청호동 바람은 밤마다 청호동을 떠메고/ 고향 뜨락까지
다녀서 바빠 돌아온다 하더라/
고향집 텃밭도 돌아보고 안방도 기웃거리다가/ 새벽이면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온다더라//

청호동 골목은 그러니까 검은 파도가/ 한의 높이까지 치
솟아 오르지/

청호동 아낙들은 밤 깊도록 낚시 바늘에/ 고향을 찍어서
바람을 찍어서 이야기처럼/
서리서리 대바구니에 그걸 담는 일을/ 아주 이속도록 하
더라

〈청호동 바람 (박명자)〉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어 모래뿐인 땅 위에 피는
소금꽃/

나무들은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이 세상 한복판 낮은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버린 안개
와 모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써늘한 소금밭에 지난날을 묻어 두고/ 흰 뼈의 통
통선은 어디로 가는 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 속에서 맨 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장난질 속에는/ 펄떡거리며 아버가 놓
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 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청호동 나무 (김춘만)〉

박명자 시인의 청호동 바람에서 이제 청호동 아바이들은
꿈 속에서 고향뜨락을 돌아보고 다시 새벽이면 제자리로 돌
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아바이들은 밤 이슬토록 명태
낙수를 찍어낸다. 이제 눈에 가물거리는 고향 보다 커가는
자식들이 더 눈에 밝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청호동의 변화를 김춘만 시인은 청호동 나무에서 '모
래뿐인 땅 위에 흔들리며 피는 소금꽃 같은 청호동 나무'를
본다. 그 청호동 나무는 청호동 아바이들이 나무를 심으면
고향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으로 심지 못한 나무대신 '떨
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를 잡고, 환호 소리로 소금을
뿜어내는' 아이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청호동 주민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엇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 줄 알
았다/

어쩌면 그 놈이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씹쓰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잠기는 밧줄 건져 올리며/ 힘있
게 뺄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 못한 눈동자 핏발 같은 햇살로/ 따스해져오는 속초
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만/

엇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러진 나무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 녀석들
웃음소리 줄 알았다/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뎀불도 해마
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개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 돌
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
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디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어
디메요/

갈매기들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돋은 하루가 물살로 감
긴다

〈청호동 아바이 (장승진)〉

바람이 불어 가끔 해금강 하얀 모래를/ 청호동 방파제 위
로 한 마장씩 부려놓고 간다네.//

수평선 위에는 가끔 붉은 달이 떠오르고/ 달 속에 숨었던
어린 나의 연인이/

선연한 눈물 한 줄기 떨어뜨리고 가기도 한다네.//

때로는 처자를 남겨두고/ 바다 건너 한사코 떠나겠다고 마
음먹기도 한다네.//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내 고향/ 뗏목을 타고 건너도 한
나절일 텐데/

나는 가지 못했네.// 나는 이제 건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
을 알아보지도 못하네.//

아무 것도 그리워 할 것이 없다네/ 아무 것도 보고픈 것이
없다네.//

그러나 지난 밤 차가운 비바람 속에/ 청호동 모래밭에 숨
어있는 메꽃 한 송이/

꽃잎이 다칠까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느라/ 전전긍긍 하였
다네.//

〈아버지의 일기 - 청호동에서- (최월순)〉

봄은 오지 말라고 / 냉이 꽃 피었습니다./ 별들의 폭죽/
금강산 왕벚꽃나무 가지에/

매달려 울다 / 세월(歲月) 다 갔수다.//

쉽게 오진 않을 거라던/ 청호동 돌담길/ 속살 드러낸 향
기/ 진동하네요.//

가긴 가는데/ 비무장지대 꼭대기 대동강 가/ 간헐성 폭
발 장애 증후군 앓는 큰 아이 집에/ 진달래 피어야/ 가네
요.//

〈속초, 청호동 (김영섭)〉

영영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알면서/ 열싸안은 꿈결에 비단
자락 흔들며/

겹으로 이별하는 동기간이 있다./ 북망산천 다다라서/ 문
풍지처럼 서러운 미수에/

혈육의 여한을 염장하는/ 처절한 눈물 강/ 범람하는 겨레
가 있다./

바라보는 별 받이면 그림지나 않지./ 함께 묻힐 수 있는
고살이면 서럽지나 않지./

심장을 옥죄는/ 자절의 끈이 어디더냐?/ 농잇소를 다 팔



신수로 개설로 허리가 잘린 청호동

아 주고/
전지 거두어 다 바치고라도/ 아니 되겠나이까/ 단전 저린
눈 빛/
상봉 채비 서슬서슬한 흰 고무신/ 상여꽃이 피었네.
〈다시 청호동에서 (김영섭)〉

청호동 모래밭에 잠시 짐을 부렸던 피난민 1세대들은 결국 귀향을 먼 훗날의 일로 기약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고 위안하며, 서로 고향을 물으면서 다시 해장술을 마신다. 그 해장술은 오늘 새로 감겨 오는 하루를 견뎌내야 할 피로회복제이자 고향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이다. 그들은 ‘나는 가지 못했네.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라고 말하지만 늘 그들의 눈과 마음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또 다른 희망이었다.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피붙이들과 만날 수 있고 아스라이 떨어진 고향길이 다시 보이는 가느다란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그 희망의 끈을 잡기도 힘들었고, 피붙이를 만난 이들도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았다. ‘논밭과 소를 팔아서라도 함께 하고 싶지만, 상여꽃이 피도록 세월만 다 갔수다’라고 다시 절망한다.

3. 실향민 2세대의 삶이 가지는 청호동의 이미지

청호동 바닷가의 삶은 늘 치열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피난민 1세대들은 악착 같이 살아가야 했다. 남정네들은 툇하면 바람 부는 동해바다에서 섬으로 가라앉았다. 오징어를 말리거나, 밤늦도록 명태 낚수를 찍어야 하는 엄마 곁을 손가락 빨며 맴도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고단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있어야 고향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피난민이 아닌 실향민으로 청호동에 얹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을 건져 올리던 바람이/ 어지러운 물살로 뒤척인다//
어느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물질을 기다렸던 명태가/ 비릿한 바람으로 걸려들고//
청호동 마실을 따라 나란히 선/ 단천상회, 북청이용소 간판이/ 네 이놈, 네 이노움! /
푹어지게 내려보는 길/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햇살로 깔깔거리려도/ 설악산 대청봉 바람에/ 손발이 시린 청호동은

아침이 오지 않는 한/ 캄캄한 바람, 어두운 대낮이다.

〈청호동 바람 (채재순)〉

이제 아이들은 ‘단천 상회, 북청 이용소’ 간판이 가지는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른들의 몫이고,

아직 어른들은 돌아갈 아침을 기다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깎깎거리고 열심히 뛰어 노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은 아직 어두운 대낮이다.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목울대가 메었기 때문이다//
갈매기를 모래밭에/ 울며 받아 적고 / 울고 읽은 이름들/
유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호동 바닷가에서 (김향숙)〉

청호동을 가르는/ 휴전선 닮은 모래톱 위/ 집들이 나지막
하다/
잠시 비를 긋고/ 바람만 막기 위해/ 오래 전/ 그들은 흔들
리는 모래톱 위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먼 훗날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
라/ 잠깐 쉬어 가는 곳/
그렇게 내린 실뿌리가/ 50년 묵은 뿌리로 자리 잡아/ 이
제는 훌훌 털고 일어설 수도 없다/
갯배 위로 철다리가 놓이고/ 바닷길이 뚫려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어/
죽은 이는 혼으로 떠나고/ 살아있는 이는 등 떠밀려 떠나
고/ 어찌지 못하는 사람만이/
하나 둘 높아져 가는 집들 속에/ 가쁜 숨 몰아쉬며/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있다

〈청호동 낮은 집 (김중헌)〉

기차도 기차길도 없는 속초 역사(驛舍)에서/ 전쟁의 아픈
기억이/
7분짜리 영상물로 상영 되고,/ 남루한 판자촌은/ 지워져
가는 기억의 증인으로/
빈 역사를 지키고 있다.//
며칠, 아니 몇 달을 기약으로/ 시작 된 피난살이/ 고향땅
다시 밟을 희망이 있어/
거친 바다에 삶을 내린 함경도 아바이들/ 모래땅 한 평짜
리 판잣집도/
배고픈 설움도 견뎌 낼 수 있었다는데//
그리움으로 지켜낸 무심한 시간은/ 기약도 희망도 모르는
척/ 저 혼자 흘러가고/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뿌리내린/ 대를 이은 실향의 아픔만
이/
빈 역사와 남루한 판자촌으로/ 실향민 문화촌, 꽃비 내리

는 뜰을 지키고 있다.//

〈청호동 아바이 - 실향민 문화촌에서 (정명숙)〉

그렇게 청호동 모래밭에 내린 얇은 뿌리들이 제법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가 될 만큼 깊은 뿌리로 잡아가게 되자, 이제
1세대 피난민들은 ‘울며 받아 적고, 울면서 읽은 이름’ 때문
에 목울대가 메어 하나 둘 죽은 혼으로 고향을 찾아 간다.
거기에 청호동이 드라마 촬영지로 뜨면서 상업자본이 청호
동을 잠식하고, 개발에 밀려 청호동 낮은 집을 떠나 시내
로, 객지로 이사를 가며 청호동이 점차 본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이제 오래된 속초의 뿌리를 보려면, 실향민 문화촌
꽃비 내리는 뜰에 박제된 청호동을 보러 가야 한다.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이/
퍼들쩍 거리며 튀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통이 속의/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
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꿉집이 들었었고/
우리를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느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
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
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의 적은 없는지/ 혹
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에 가 본적이 있는지 (이상국)〉

물길을 트느라/ 사람의 발길을 끊었다/ 아바이 마을의/
새로운 38선//
이제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20분과 5분의 차/ 야경 사진의 멋진 배경이 된/ 두 개의
철제 다리//
잃은 것에 대해 누구도 말이 없었다//

가을동화 은서네 집/ 1박 2일이 다녀간 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는 곳//
발뒤꿈치로 눌러서 팔던 말린 오징어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고향을 잊지 않으려 던 이들과/ 그들의 삶을 나르던 갯배
마저/
편도 200원짜리 인증샷의 배경이 되어버린//오늘 저녁
무렵//
청호동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
고 있다.//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김중헌)〉

이제 청호동 사람들도, 실향민 2세인 우리도 선뜻 청호동
에서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과 ‘수장 당한 어부’와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거
기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납작해진 한반
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고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
는 곳’으로 청호동을 리모델링해서는 안된다. 우리 속초의
역사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일한 실향민 브랜드인 ‘청
호동 아바이 마을’의 뿌리를 지위하며, 관광 1번지만을 외
치는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IV. 갯배의 역사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 주고 있는 도선(渡船) 갯배는 일
제말기에 속초항이 개발 되면서부터 그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 반부평(청호동)으로 불리던 이곳은 속초 부월
리 2구(청호동)과 속진(영랑동과 중앙동의 일부)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
의 수로가 형성되자, 이 마을 사람들이 거룻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고,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1955년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게 되었는데 본래 크기는 트럭 한대와 우마차 한 두
대를 같이 실은 정도였다. 1961년도에 1척을 더 만들어 정
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다. 속초시에서는 1988년에 다시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의
갯배는 1998년에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갯

배의 운항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항
하고 있으며, 청호동 주민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해 유료 이용객수는 15만에서 20
만명이며, 청호동 주민의 이용도 연간 20만 명을 넘으면서
갯배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또한
속초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삶의 현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갯배는 양쪽에 두 가닥을 쇠줄을 매어 놓고 각 쇠줄별로
하나의 배를 고정시켜 사람이 직접 갈고리로 쇠줄에 걸어
당기면서 배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운행하는 멍텅
구리 배다. 이 갯배에 승선하는 사람은 노약자를 제외하고
는 모두 갈고리로 이 배를 끌어야만 청초호의 수로(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 배는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여자 주인공
과 남자 주인공의 스쳐 지나는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국제적
으로 유명해 졌다. 최근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
이 시내로 넘어가기 위해 이용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도로를 이용하여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동하면 30분이 걸리
지만 갯배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왕래 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아바이 마을 갯배에서 인용-

이렇게 청호동 주민들의 생활 수단이었던 갯배는 이제는
시내로 볼일 보러 가는 노인들 몇 분만 이용하고, 오후와 주
말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직접 쇠줄을 끌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인증샷의 배경이 된 관광 상품으로 더 유명
해졌다.

그런데 기존 갯배는 지난 2015년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안전검사 대상이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무동력선으로 안전
검사 요건인 제조검사도 받지 않아, 승선인원을 33명에서
12명으로 감축 운항해 왔다. 2017년 11월 15일에 속초
도심과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연결하는 속초의 명물인 갯배
(청호도선)가 새로 건조돼 운항에 들어갔다. 새 갯배는 길이
9.5m, 승선정원 32명 규모이며, 이용요금을 10여년 만에
현실화해 소인은 기존 100원에서 300원, 대인·손수레·
자전거는 기존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용시간
은 오전 5시~오후 11시까지며, 연중무휴다. 속초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설악신문 기
사 인용 -

V. 지역문인의 시 속에 나타난 갯배의 이미지

갯배는 속초의 또 다른 상징이자 청호동의 이미지와 늘 같이 따라다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갯배는 속초에서 실험만 하면 연상되는 1.4 후퇴 - 함경도 - 청호동 - 아바이 마을 - 갯배로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꿰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물이 들어가자고/ 날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 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래벌에 다 묻고/
이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꿰어 떠도는 함경도일 뿐./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청호동 갯배 (이상국)〉

갯배를 아는지/ 언제 가나 함경도/ 자벌레 제 몸 재며 가듯/
온몸으로 기어가는 배를 아는지/ 그 배 타고 꽃 피는 단천 가는 사람들 아는지/
한 오십 년 속초와 신포 사이를 오가는/ 꿈길을 아는지/ 가다가 가다가 풍덩/ 푸른 동해 빠져 죽고 싶은 배를 아는지/
흑역사라는 멍텅구리 배를 아는지/ 함경도에 가본 적이 있는지/ 청호동을 아는지

〈갯배 (이상국)〉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 저녁 빼걱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갯배 1 (이상국)〉

지역 문인 중 ‘청호동’과 ‘갯배’를 가장 시 작품으로 많이 형상화 한 이상국 시인은 초기부터 한참 동안은 갯배를 속초나 청호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함경도 청진, 원산, 신포, 단천의 어디쯤으로 보았다. 그래서 북쪽의 한류가 속초 바다를 찾아오는 계절이면 날래 고향으로 가자고 귀향의 꿈을 키우지만, 청초호 더러운 물 속에 잠긴 와이어 로프에 복장을 꿰인 갯배는 스스로 떠날 수도 없고, 그저 기어 다니는 멍텅구리 배일뿐이다. 그러나 또한 청호동 사람들에게 갯배는 실제적으로는 단순히 시내로 가는 교통수단이지만, 심정적으로는 피난 내려와 지금까지 살아 온 마흔 몇 해 동안 계속적으로 드나들었던 고향과 피붙이 속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풀어냈다.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다./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가 품팔이 갔다 돌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야야, 성진훗집 선자야! 느 엄마가 꼬치까리 사 오래는 걸/ 내레 깜빡 까먹었다.

니 건너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 지른다./

-에이, 아줌만 챙피하게, 얼마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이 고춧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꼴값한다. 무시기 챙피하니,/ 꼬치까리 안 먹고 사니?/

학생들이 먼저 킁킁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갯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갯배 3 (이상국)〉

겨울 새벽/ 영하의 기온 속에 눈발 조차 훑날리는/ 청호동 갯배//

아바이는 새벽 4시를 열고/ 멍태바리 나갔고/ 동해 수평선에서 날아온/

눈 푸른 팽이갈매기들/ 표범보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ㅋㅋㅋ 갯배머리를 쪼아대었다//

오마니는 펄펄 뛰는 생태를 고봉으로/ 고무 함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섰다//

자전거를 끌고 배에 오는 먼서기 아저씨/ 강아지를 데리

고 할마시 한 분도 배에 올랐다/
 책가방을 들고 서있는 미래의 꿈나무들 ... //
 살아있는 풀잎 같은 생명체들이/ 빙산 같은 동체를 입김
 으로 움직여서/
 청호동을 떠밀고 갔다 // 청호동 갯배는 아침마다/ 만삭
 이었다//

〈청호동 갯배는 만삭 이었다(박명자)〉

그러나 한편 갯배는 청호동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인
 청호동과 각종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속초 시내와의 유용한
 연결 고리였다. 일터로, 학교로, 시장으로 통하는 일종의
 마법통로와 같았다. 그들은 갯배를 기다리며 단천 댁이 었
 저녁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고, 갯배의 갈고리를 함
 께 당기며 함흥댁의 은근한 흥볼거리를 속닥대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다른 갯배를 보며, 인사도 나누고 깜빡 잊어
 버린 물건도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아주 쓸만한 소통의광장
 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너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 내게로 오게 함이었
 다/
 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쫄/ 더 아플 것 없는 청호동
 바람에 흩어내고/
 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마다/ 물결 사이로 솟구치는 유혹
 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가 왜/ 먼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 밤마다 서성이는
 지 알아야겠다/
 갈고리에 끼운 쇠줄/ 힘껏 당기어/ 네 가슴 한가운데를
 끌어내는데/
 내 먼저 가고 있는 건/ 발 먼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
 인가//
 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 내 가슴 한가운데로/
 굵은 쇠줄 하나 내리고 싶다.//

〈청호동으로 가는 갯배 (지영희)〉

줄을 당긴다/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 물 속 깊이 가라앉
 아/보이지 않는 줄을 당기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너의 나의 질긴 인연//
 가 보지 못한/ 너의 길을 걷기 위해/ 오래 걸어 왔던/ 나
 의 길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빨발에/ 흘러간 시간들을

버리고/ 익지 않은 꿈도 버리고/
 나도 버려야 한다// 가까와진 만큼/ 또 멀어지는 것들로/
 청호동 갯배는/
 날마다 줄줄 눈물 흘리고 있다. //

〈청호동 갯배 (김중헌)〉

물가에 서면/ 돌아갈 곳이 있을듯해/ 잔잔한 파문 물고
 들어설 마을이/ 있을듯해//
 골목을 몰고 다니던/ 스산한 바람/ 남아있는 사람들 몇
 집 건너씩/ 쪽마루에 걸터앉아/
 김버섯 드뭇한 햇살 받아 놓고/ 시름없이/ 하여 봉분 돌
 우지 못한 문돌쩌귀 그대로 두어/
 무서운 겨울 손에 짹짹 붙던 추위/ 기억의 저장장치를 슬
 라이드로 열어놓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마을// 물가에 서면 돌아올/ 그 누군가가
 있을 듯//

〈청호동 갯배 (조인화)〉

위의 갯배에 관한 시 3편은 단순하게 갯배를 실향의 상징
 으로만 표현한 시로 볼 수 없다.

언어가 가지는 다의적 특성을 살려 시 작품을 읽는 독자
 의 해석에 맡겨놓은 시라고 본다.

즉 위 갯배에 나타난 이미지는 크게 2가지로 읽힌다. 그
 첫 번째는 속초와 갯배에 담긴 실향의 메시지를 읽어 낼 수
 있는 독자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청호동 실향민의 그
 리움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갯배를 청호
 동과 속초 시내를 연결하는 끝배로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은
 위의 시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메
 시지를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세월이 흘러 실
 향의 아픔과 망향의 그리움이 희석되었다는 의미이다.

저렇게 푸른 동해도/ 청초호에 들어오면 썩을 수밖에 없
 다/ 흐르는 물 길 막히면/
 우리들 그리움 또한/ 이까 복잡처럼 새까맣게 멎을 수밖
 에 없다/
 갈매기들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여름/ 낯선 관광객
 들은 갯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들 분단의 고통이/ 피서지의 추억이 되고/ 떠도는 삶
 이 구경거리가 되는 동안/
 썩어가는 청초호에 몸을 담그고/ 우리는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막는다.

〈갯배 2 (이상국)〉

그렇게 지워져 가는 분단의 아픔과 실향의 그리움을 이상국 시인은 ‘우리들의 그리움 또한 이까 복장처럼 새까맣게 멎들 수밖에 없다.’고 자조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종 탓의 배경이 된 갯배와 그저 피서지와 먹거리 관광지로 뭇춘 청호동을 보며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 막는’ 것 밖에 할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한다.

동해의 햇살들을 갯배에 싣고/ 그리움 물그리메 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슴으로 스미는 바람//

그리운 이 하나들 꽃처럼 저서/ 바람에 전한 안부 소식도 없고/
 청호동 고향되어 줄 감는 손길//

갈매기 한 마리가 갯배를 따라/ 물속을 바라보다 먼 하늘 날다/
 청호동 노을 속에 멀어져가네//

〈갯배 (정영애)〉

분단의 세월이 흐른 지, 어언 60여년. 이제 실향민 3세대는 더 이상 청호동과 갯배를 보며 고향 함경도와 두고 온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지 않는다. 60년간 지속되어 온 피난민의 삶의 원형인 ‘서사’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찌면 갯배는 그리움과 관계라는 ‘서정’만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지역문인의 작품을 주로 살펴보았다. 지역 문인이 아닌 다른 시인은 어떻게 청호동과 갯배를 해석해 썼는지 작품 하나를 살펴보자.

아무도 살지 않던 모래 벌에/ 바람 승승 구멍 뚫린 헌 문 짝 달아 놓고/
 바닷물처럼 간간히 밀리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목젓 늘

이며 살아가는 청호동 사람들//
 수평선 한 쪽으로 가슴 한 쪽이 기우는 그리움에/ 기우는

몸 싣고 가는 갈매기 떼들에게/
 고시내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길/ 어느 새 바다 노을이 가슴에 번지면/
 마디진 한 생을 이어가듯 그물을 집고 또 집는다// 꿈속

에서도 누군가를 찾는 소리/
 겨울 바다보다 자식들의 가난이 더 무서워/ 빼꼼한 하늘

한 쪽을 지붕삼아/
 저녁밥 짓는 냄새에 위안을 얻었던/ 늙수그레한 청호동

아바이//
 뚝리다만 원산 행 철로 같은 이마의 깊은 골/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갈아엎었을까/
 걸쭉한 사투리가/ 어릴 적 뱃길을 만들고 지우며/ 허공에

길을 낸다/ 바닷길을 연다//

〈청호동 아바이 (정정하)〉

Ⅵ.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 지역 문인들의 시 작품 속에 ‘청호동’과 ‘갯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찾아 그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작품을 해석해 내는 일은 온전히 읽는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글 또한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필자의 스키마와 움벨트로 해석한 결과임을 밝힌다. 부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오독’이 가능한 적기만을 기대한다.

이제 청호동과 갯배는 더 이상 60년간 청호동을 만들고, 지켜내려 온 실향민 1 세대들의 분단과 망향의 ‘서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은유하는 ‘서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청호동’과 ‘갯배’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청호동과 갯배’를 다시 한 번 조명해보는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 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청호동과 갯배’의 서사를 다시 살려내야 하겠다.

속초예술

환동해권 국제문화예술교류의 시작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예술문화교류의 씨앗을 심다

업 계 록 |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회 회장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 중심지를 이루는 산업 도시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며, 현재 3만 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해주 고려인 문화 중심지이다. 지난 7월 속초예총에서 전한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라는 행사는 생경했던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17년 속초예총은 처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고려인 가요경연대회를 올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과 장규호 속초예총 국제교류위원장이 중심으로 이메일과 전화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여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라는 행사 명칭을 확정, 5월 29일 예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5월 29일 정봉재 회장, 장규호 위원장, 전일





국제교류위원과 함께 예선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 후 버스를 타고 국제교류 협의의 장이자 예선장소인 우수리스크 연해주고려인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우수리스크 측 행사 관계자인 김 발렌진 고려인문화센터 관장, 김 발레리아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과 구체적인 행사협의를 했다. 그리고 29일 예선을 통해 총 21팀의 본선참가자를 선정, 음악 편곡과 연주라는 다른 고민을 안고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

본선은 7월 3일 우수리스크 군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세션 구성 및 음악 편곡에 집중했다. 그리고 기타(엄계록), 베이스(이상원), 피아노(이은미, 엄무림), 드럼(엄무형) 등 세션을 구성하여 바로 연습에 몰두했다.

속초예총 관계자 및 후원인 13명은 개인 짐보다 많은 행사관련 물품을 들고 7월 1일 저녁 10시 40분 인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숙소에서 도착하니 새벽 4시, 짧은 휴식 후 고려인문화센터로 이동하여 가요제 진행 논의와 시상품 구입 등으로 하루를 보냈다. 행사 당일 오전 리허설을 위해 우수리스크 군인극장에 도착했다. 이 극장은 러일전쟁 중 일본인 포로들이 지은 것으로 3층 규모의 9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이다. 오전 9시부터 악기 세팅 등 음향 체크 후 오후 세시까지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 중 80대 노부부 등 어르신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개인 생애사를 들으며 다시금 러시아 고려인



들의 고난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행사시작. 오후 4시 40분까지 관객들이 오지 않아 한국 측 행사관계자들은 큰 걱정을 했다. 하지만 50분부터 밀려들어오는 관객들로 전 객석이 꽉 차기 시작했다. 계속 입장하는 관객들로 5시 10분이 돼서야 가요제를 시작했다. 이번 가요제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이든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한민족의 노래만 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본선 참가자들을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본선 출연자들은 우수리스크,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 곳곳에서 참가하였고, 침대에서 80대까지, 고려인과 슬라브인까지 구성원들이 다양했다. K-팝부터 트로트 등의 한국가요부터 연변, 북한 노래까지, 나그네 설움 등 1940년대 노래부터 눈, 코, 입 등 최신가요까지 가요제



참가곡들이 다양해 가요제 진행 직전까지도 음악 편곡 수정 및 완성도 높은 연주를 위해 세션들과 협의 및 연습이 집중했다. 세 팀이 여러 이유로 기권하여 총 18개 팀이 함께한 가요제는 속초시 대표로 신오일 속초예총 부회장과 우수리스크 대표로 김가은양의 사회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행사종료 후엔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발렌진 고려인문화센터 관장은 “한국에서 이 행사와 비슷한 문화행사를 하자는 단체들이 많았으나, 말로만 끝나는 경우와 용두사미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속초예총

의 가요제 제안에도 처음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봉재님과 장규호님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 멋진 연주와 성공적인 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후년에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고, 김발레리아 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은 “보통 고려인 관련 행사에는 슬라브인의 참여가 적는데, 이번 행사는 슬라브인들의 참여도가 높아 두 민족의 화합에 큰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속초예총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가요제의 성공을 자축했다.

4일 김 발레리아의 해설로 고려인 문화센터 내 역사관과 아리랑 전시실을 둘러보며 한인 강제 이주 및 항일 운동의 서글픈 역사를 더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발해 왕조의 성터, 우수리스크 인근 수이폰 강변에 위치한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 거주지를 돌아봤다.

5일 속초로 귀국하여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행사를 준비하며 편곡·합주 등의 문제와 악기 운송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공적인 행사 성료의 기쁨으로 희석되었고, 지금은 내년엔 어떤 참가자가 어떤 작품과 사연으로 참가할지 기대하게 된다. 이 행사가 씨앗이 되어 속초와 우수리스크 간 다양한 예술 싹이 돋을 것을 확신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고를 다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속초예술**





"의연하게"

권 다 림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극단 소울씨어터)

배우로서 한 집안의 장녀로 가장으로, 아니 월세, 학자금이자, 공과금, 통신비 등등 홀로 살기도 사실 벅차다. 배우 게 도둑질이라 연극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마냥 닥치는 대로 작업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급여를 계산하며 작품에 참여여부를 결정 짓기도 했고, 감사하게도 러브콜을 해주셔도 교통비, 체류비가 걸려 참여를 못한 작품도 있었다. 그렇게 3년을 지냈다. 첫 해는 이렇게 되어버린 내 처지가 한탄스러웠고, 두 번째 해는 익숙해졌으며, 세 번째 해는 무기력해졌다. 그렇게 2017년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남호섭 대표께서 올해 강원연극제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감사하게도 다시 물어봐주셨다.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하겠다고 했다. 나로서도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들과 작업을 하고 나면 내 일상도 연극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시 리프레쉬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그렇게 2018년 1월 눈 안 보이는 대표님 앞에서 윤국중 단원과 나는 작품을 돌이켜 읽어 내려갔다. 서울에 있는 최귀웅 연출이 대본들을 보내주고 우리도 대본을 찾고 읽고 찾고를 반복했다. 구성원이 줄



어 적당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조차 사실 많이 어려웠다. 강원연극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극단 구성원들이 배우에 60%를 차지해야 출전할 수 있었다. 배우는 남자 3명, 여

자 1명이기에 작품 내용보다는 배우가 몇 명 나오는지 남녀비율이 어찌되는지가 중요했다. 참가는 해야 했으니까.

1월 말 최귀웅 연출은 대본 확정을 위해 내려왔고 사실 난 다른 작품을 원했지만 남호섭 대표의 강력한 추천 덕에 우리의 2018 강원연극제 참가작은 만주전선으로 선정되었다.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나오는 작품인데, 우리 극단에서 여자 연기자나 나 하나다. 배우 섭외와 외부 배우가 오면 체류할 숙소 등 우리끼리 작품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준비할 것이 태산이었다. 옆친데 똥친격으로 함께 준비하던 여배우는 서울에서 진행한 작품과 우리와의 스케줄이 겹쳐 중도 하차를 하고 새로운 배우를 섭외했다. 파도가 와도 그럭저럭 넘기며 만주전선의 대사처럼 우린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2월을 보내고 있을 즈음. 설날이 되었다. 설날 연휴에도 연습이 있을거라 말해서 그런가. 모두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지쳐있다. 작품이 일제 강점기 친일파이야기라 그런지 우린 감정적으로 작품을 대하기보다는 작품 속 숨어있는 말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테이블 작업만 진행할 때였다. 정말 생각할게 많아 머리가 터지고 찾아볼게 많아 눈이 빠지는 것 같았다. 사실 소울씨어터에게 이런 작업방식은 아주 익숙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만 풀기엔 만주전선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특히 남대표는 더욱 힘들어보였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로 신호를 보냈고, “오늘 날이 흐리냐? 어둡다.” 하셨다. 흐리긴 하였지만 2시가 어두울 리가 있을까. 시야가 좁고 물체를 인식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긴 했던 눈이 결국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게 남대표의 방향은 시작되었다.

나 또한, 배우역할만 하다 오랜만에 단원 몫을 하려니 매우 버거웠다. 지쳐있었고 생기도 충기도 없었다. 대표가 작품을 엮자고 했을 때도 안도하며 “그래, 나도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설날이 지나자 거짓말같이 남대표는 바닥을 치고 다시 위로 올라왔고 나도 그냥 따라 올라가는 척했다. 그렇게 만주전선은 3월 30일 공연을 했고 연극제는 끝났다. 아니 끝난 줄 알았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우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대상을 수상했다. 남호섭 대표는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했다. 겹경사지만 모두들 어안이 병병했다. 이 작품을 끝으로 연기를 그만두려했던 누구는 울었고, 다 끝난 줄 알았던 만주전선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생각에 나도 울었고, 5년 만에 소울씨어터 이름으로 첫 대상을 수상한 대표도 울었다. 그렇게 울며 복잡한

감정으로 트로피를 들고 속초로 올라왔고 잠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다.

내 정신 상태는 사실 심각했다. 타인을 보면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연습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눈물이 나왔다. 이런 상태를 밝히며 난 대한민국연극제에서는 스텝을 하길 원했다. 하지만 고맙게도 다른 배우들이 배우가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작품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을 명목삼아 난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만주전선으로 힘들었던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연극제를 준비했다.

속초 선배님들의 넓은 배려로 대한민국 연극제 일주일 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속초예총에서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연극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사실 강원연극제 수상이후 대상인 우리 팀만 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돈이 없다’ 였다.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강원연극협회의 말은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가는 6월 20일 지급되었다.

한 편의 연극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준비 할 것이 많다. 일부에서는 이미 올렸던 공연인데 돈이 뭐그리 드냐 하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이다. 극장이 소극장에서 대극장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커진 무대 스케일과 조명에 속한 인건비만 따져도 원래 예산에서 몇 배가 오른다. 또한, 우리는 재공연이라는 마음이 아닌 더 단단하고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기에 의상 또한 전면 교체했다. 대전까지 갈 버스비, 숙박비. 모든 것들이 다 돈이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금은 소식이 없고 외부 배우들 숙박비부터 들어갈 돈들이 많아 결국 단원에게 돈을 빌려 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원연극제 준비를 할 때 연습실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우리의 상황을 아신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남상진 지부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 연습실 대관, 외부 배우들 숙박할 곳을 저렴하게 알아봐주시는 것도 모자라 심시일반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셨다.

심시일반으로 모여진 5백7만원은 정말 죽어서도 잊지 못할 돈이다. 이 돈이 없었다면 미리 지급해야하는 무대비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린 그 큰 대극장에서 다다미 9칸에서 복작거리고 있었으리라. 이번에도 많은 파도가 왔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우린 의연하게 넘길 수 있었다.

속초 종합예술제 공연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셋업을 마친 밤. 남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에게 밤 11시에. 내용은 “극단 소울씨어터는 참가자격 미달로 심사에서 배제되어야한다. 하지만 준비한 것이 있

『십시일반 모금 프로젝트』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강원도 대표 참가
연극협회 속초지부 서울씨어터 <만주전선>

후원금 계좌 : 농협 301-0126-1191-11
예금주 사)연극협회 속초지부

모 금 액 : 500만원 (1인 1만원씩 500명)

모금기간 : 2018년 5월 17일 ~ 6월 16일

문 의 : 010-3153-3606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강원도 대표 참가를 위한 시·도민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십시일반 모금 프로젝트』에 도민 및 속초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으니 공연도 올리게 해주고 집행되기로 했던 6백만원도 지급하겠다. 사정이 딱한 것을 내 알고 있으니 개인상정도는 받게 해주겠다. 심사위원에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말해놓겠다. 알고있어라.” 통보였다. 남대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담이지만 남대표는 아침 11시줄 알았다.) 공연 일주일전 밤 11시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공문 이 아닌 개인 전화로 통보를 하다니. 하지만 우리 착한 남 대표와 최연출은 공연을 앞둔 배우들을 흔들기 싫어 자신 들만의 비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하고 있었다. 그러 다 결국 모든 사무와 행정 일을 보던 내게 물었다.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자격이 무엇이냐고. 난 순간 당황했다.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자격? 수상자격? 무얼 묻고 싶은 것인지 부터 시작했고 사건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참가자격에 대해 극단에게 어떤 전달도 하지 않았고 다만 수상자격은 협회 회원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알고 있었다. 참가자격은 강원연극제때 강원연극협회에서 온 것이 전부 이며 우리에게 대한민국연극제에 도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참가자격은 지역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팀이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어디에도 참가자격을 알 수 없어 우린 급하게 정관을 받아 보았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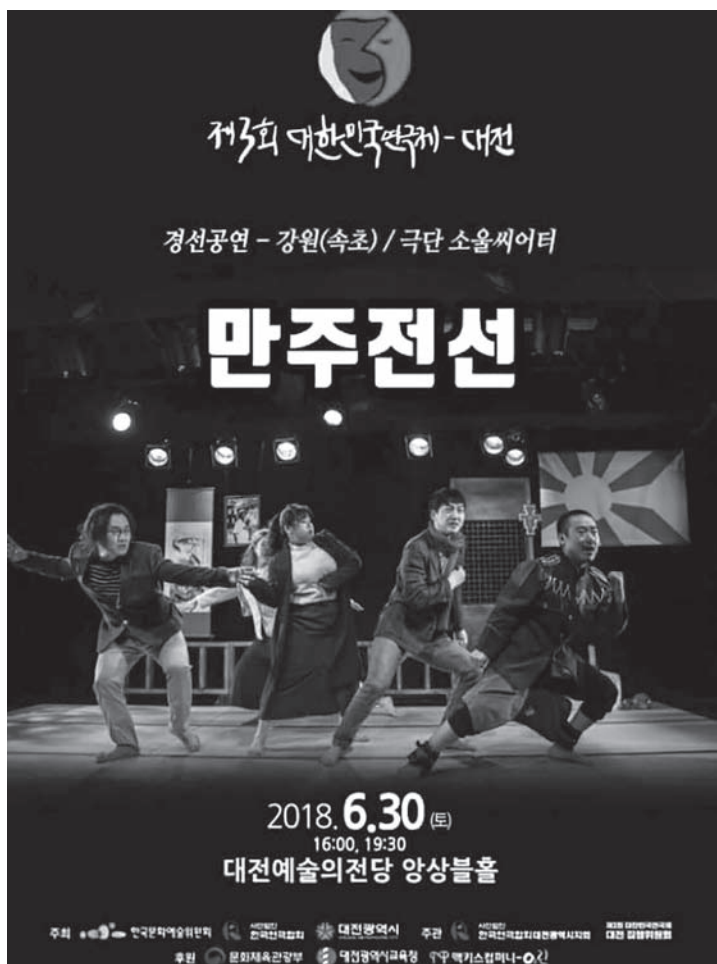
제7조 (경연참가자격)

참가 극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연극협회 정단체로 한다.

연출자, 배우는 해당 시·도 내 지회지부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회 전년도 10월 말까지 입회한 자여야 한다.

해당 지역 정회원 5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지역 정회원 20%, 비회원 3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코러스 등을 제외한 주 출연진). 단 비회원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2차 이사회)

참가자격이 지역연극제와 대한민국연극제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강원연극협회에 문의해보니 강원 연극제에서 제대로 기준을 두고 진행하면 참여팀이 국한 되어 연극제 진행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강원은 주요배우



60%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어찌되는가. 우리 팀은 배우가 총 6인이고 4인이 강원연극협회원이다. 강원연극협회의 기준이면 66%로 참가자격이 인정되지만 대한민국 연극제 기준에는 참가자격이 없다. 우린 기준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린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기 위해 반년동안 함께 한 이들을 협회원 중 한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가. 함께 한걸음을 내딛는게 더 값지다는 연극인들의 말은 그럼 어찌되는 건가? 또한, 이 중요한 사실을 공연 일주일 전에 개인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옳은가?

참가서류를 준비할 때 뭐하나 빠져 극단에 누가 될까 익숙하지 않은 서류들을 붙잡고 사무실이 없어 PC방, 예충, 타 사무실을 전전하며 서류를 준비하던 나는 허무함이 더했다. 서류를 보낸 것은 5월 27일 공연 한 달 전인데 고지도 안한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이제 와서 전달해놓고 우리에게 심사배제 통보라니. 그리고 호의를 베풀 듯이 공연은 하게 해주겠다니. 이게 12년간 내 입장을 대변해주리라 믿었



던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에게서 나올 소리란 말인가. 부당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이런 리프레쉬를 바란건 아니지만 난 지금 에너지가 넘친다. 가만히 있다가 알아서 스스로 인정하고 해결해주길 바랬다간 더 큰 상처만 돌아올 것 같아 우린 대한민국 연극제 마지막 공연이 끝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와 사진찍기를 거부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고 예상과 같았다. 만나길 원할 때는 바쁘다 했던 이사장이 스트라이크 도중

전화가 와 만나자고했다. 그리고 우린 스트라이크가 끝났음에도 결국 기다려야했다. 공연 끝나고 바로 온 것도 아니고 극장 문이 닫히고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끝날 때쯤에 온 이사장을 우린 보고싶지 않았다.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사장의 말을 전해만 들었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단지 그날만 미안했을 뿐인가. 우리의 6개월을 쏟아 부은 작품에 대해 사실 정황을 확실히 알지 않고 우리 탓인 것 마냥 심사위원에게 심사배제를 지시한 시간과 사과를 받는 시간은 확연히 다르다. 또한, 공정해야할 심사위원이 심사배제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모르고 이사장의 말에 복종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린 아직도 공개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강원연극협회도 한국연극협회도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진상조사라니...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사실에 대해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뭘 조

사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싸움이 지쳐가기 시작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하는 싸움처럼 진전없는 게 있을까? 내 지구력이 바닥날 때 쯤, 난 내년도 내후년도 연극할 것이기에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반박 글과 공문을 작성하고 있다.

선후배는 있지만 갑은 존재하지 않는 연극계를 원한다.

또한, 올바른 일처리를 하는 협회를 바라며 후배 연극인들이 협회원이 아니라도 서로 연극인으로 인정하길 바란다.

우리가 온갖 역경을 겪으며 제 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이 파도를 이번에도 의연하게 넘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속초예술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며

황 승 연 |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회원



10월 31일 새벽 2시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가는 러시아, 처음 가는 나라의 기대감을 안고 속초예총 사무실에 모여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했다.

아침부터 북적이는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10시 5분 비행기가 출발했다.

유럽이라는 생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러시아 하지만 도착까지의 예상시간이 2시간이라는 비행기 좌석 화면 속 도착예상 시간을 보고 멀게 느껴졌던 나라가 가깝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12시 즈음 비행기 창밖으로 드디어 황량하고 넓은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안가 블라디보스토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밖을 나오는 순간 러시아는 추운나라다 라는 선입견으로 가지고간 두꺼운 옷들에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온 속초보다 따뜻하고 햇살이 강한 포근한 날씨 내가 생각한 러시아의 날씨는 아니었다.

준비되어 있는 버스에 짐을 싣고 공연장으로 출발했다.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뜨문뜨문 보이는 건물들 가끔 보이

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축양식의 건물들을 지나치며 이제 러시아에 왔다고 실감하게 될 때쯤 공연장에 도착했다. 공연할 때 쓸 악기와 의상 전시할 물품들을 공연장에 내려놓고 숙소로 출발했다.

숙소 도착 후 짐을 풀고 저녁 먹기 전까지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휴식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가보았다. 이 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점 이자 종착점 이라고 한다. TV나 책에서만 보던 시베리아 열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언젠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11월 1일 첫째 날의 피곤함이 남아있는 몸을 힘들게 일으켜 세우고 공연장으로 리허설을 하러 출발 숙소에서 나와 이번 러시아 일정 중 가장 많이 갔을 혁명광장이라는 멋진 이름의 광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하나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언어를 들으며 공연장으로 도착 후 음향 리허설을 마치고 다 같이 혁명광장으로 이동. 점심식사를 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돌아보았다.



이곳은 역사적인 건물이나 상징물들이 보존도 잘되어있고 수도 많았다. 혁명광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개선문이 나오는데 이 개선문은 러시아의 마지막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황제가 되기 전 각 도시를 돌며 방문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 옆에는 정교회 사원이 있고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했던 잠수함으로 만든 잠수함박물관과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영원의 불꽃이 혁명광장과 가까이 붙어있었다. 광장 근처의 명소들을 본 후 러시아의 문자인 키릴 문자를 만든 키릴형제동



상이 세워져있는 독수리 광장까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녔다.

독수리전망대를 끝으로 다시 혁명광장으로 돌아와 각 협회별로 다니기로 하고 내가 속한 국악협회는 모스크바에 있는 아르바트 거리를 본떠 만들었다는 아르바트 거리로 갔다. 예술가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주말에 거리공연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주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공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돌아보며 러시아의 두 번 째 밤을 즐겼다.



11월 2일 드디어 첫 번째 공연 날이다. 공연이 오후에 있어 천천히 일어나 12시에 모여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공연은 연해주청소년예술콩쿠르 행사의 갈라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연해주 지역 청소년들이 러시아 전통 춤이나, 발레, 합창 등을 하는 콩쿠르였다. 어린 나이부터 많은 연습을 하고 콩쿠르에 나와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다. 국악협회 차례가 되어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 그동안 공연을 많이 했지만 해외에 나와서 하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했다. 사물악기들의 짜임새 있는 연주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흥이 차는지 반응이 좋았다. 역시 음악은 만국 공통어가 맞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11월 3일, 국악협회의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다. 아침을 느긋하게 맞이하며 전날 가보려고 했던 중국시장과 해양공원을 돌아보며 3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

11월 4일, 콩쿠르의 마지막 날이다. 10시에 축하공연을 하는 일정이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극장으로 이동. 공연준비하고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상모를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이 러시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지 힐끔힐끔 보면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렸다. 국악협회 차례가 되어 상모판공 공연을 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상모를 돌

리고 재주를 부리는 것이 신기한지 박수도 많이 쳐주고 반응이 좋았다. 공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콩쿠르에서 입상한 팀들의 축하공연 형식의 갈라쇼가 준비되어 있고, 그 축하공연에 속초 국악협회·무용협회에서 한 꼭지씩 공연을 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공연장 밖을 나오니 추워지며 속초의 바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상상하던 러시아 날씨라는 생각을 하며 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 후 러시아 일정을 같이 해온 예총 식구들과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 짧게만 느껴졌던 러시아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잠이 들었다.

11월 5일 드디어 길다 먼 길고 짧다면 짧은 러시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러시아가 가지말라고 붙잡는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연을 좋아해준 것에 고맙고, 그들만의 문화를 어린나로부터 배우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전통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문화를 후대가 잘 이어가게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기회로 러시아 전통음악과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장르의 작품도 만들고 같이 협연공연도 하며 속초와 블라디보스토크 양 도시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속초예총



흔적 2018-8
• 8F, Oil on canvas 2018



김영복

산이 있어 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어언 40년이 지났다.
잘 그리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일관되게 작업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작업할 때 까지만 내 것이고, 발표한 후에 그것은 사회의 것이라는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재주를 부리기보다는,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비운만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2018. 11. 9

작가노트 중에서



자작, 하얀영혼의 실루엣



박 동 국

자연의 숭고한 감동을 담은 박동국의 화폭들

강원도 백두대간의 대자연과 호흡하며 그 감동의 진액들을 그대로 담아 다시 분비해내는 것이 그의 수채화다.

작가는 자연의 감동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 수채화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 까닭에 고집스럽게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수채화는 우리의 감성에 잘 흡입될 수 있는 그림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담백한 감각을 선호하는 우리의 정서가 더욱 수채화에 잘 맞다.

개인전 서문중에서(이재언:미술평론가)



바다3

• 42×94cm, 종이, 먹, 물감

바다

나는 요즈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까?’ 생각해본다.

잠시 일탈을 해보지만,

그러나 얼마 못가서 나는 ‘그림밖에... 없어’라고

속으로 내게 다시 말하곤 한다.

언제부턴가,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끔 지칠 때면 찾아가던 바다 옆 카페에서

달콤한 모카커피와 함께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은,

바다가 주는 에너지로 힘을 얻어 돌아오곤 했다.

나는 그 에너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전체가 질서 있게 일렁이며

잔잔히 모래까지 와서 부서지는 모습들,

조용히 넘어와 부드럽게 만져주는 그 느낌들

7층 높이에서 바라본 파도는,

어느 동화애나 나오는

공주님의 드레스를 꾸며던 겹겹의 흰 레이스 같았다.

그 파도가 내 작업실로 옮겨진 후부터

나는 그 카페보다

작업실 파도 앞에서의 커피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다.

무질서한 그 움직임에

정해진 기호가 있음을...



백 종 숙



가을하늘

20.5 X 14.5cm, 수채

낮익은 풍경이 고향이다.



정 봉 재

속초는 내게 아주 익숙한 곳이다.

길을 지나다 만나는 모든 얼굴들이 반갑고 고향이다.

골목을 지나면서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낮익고 그림고 기억이다.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억이 될 이곳이 사랑스럽다.

언젠가 바뀌어 버린 모퉁이를 돌아서면서도 옛 풍경이 보인다.

먼지털어 과자를 쥐어주시던 구멍가게 할머니도

지금은 키큰배달적인 리어카아저씨들도 별 좋은 담벼락에 기대어 계신다.

기억은 속초 어디에도 남아있다.



어울림

162×122cm, 사이잘, 면천, 울실, 염료, 부직포, 접착제

작가 노트



고 주 리

자연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인 숲을 사랑한다.
 숲속의 싱그러움 느낌,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주는 포근함
 사계절의 변화를 주는 다양한 색감들을 좋아하며, 숲속에 존재하는
 나뭇잎사귀 꽃 등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한다.
 숲은 푸릇푸릇한 나뭇잎의 생명력과 우리에게 신선함과 정화된 마음을 주며
 행복감과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숲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의 형상들의 어울림을 표현하고자 했다.



외설악 _ 5월의 향리
50호, 한지, 수묵담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한국화의 변화와 모색,
자연을 조명하는 내면적 의식 속에서 표출하려는 창조적 현대화로의 조심스런 물결의
변화, 무수한 색의 울타리 속에서 시간적 변화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공간의 형상을 붓
으로 나타 내려함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방향과 창작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론에 그릇됨은 없는지...?
아직도 부족함에 자연과 함께 조화롭고 진지하게 수업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



조 정 승

묵오당(墨悟堂)에서 조정승



변산아씨(변산바람꽃) 설악에서
이렇게 추운 날 나를 기다렸나보다
어여쁜 얼굴로...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회원

김 건 수



비밀의 정원

인제군 남면에 있는 ‘비밀의 정원’으로 4계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인공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공원으로 특히 늦가을 서리와 단풍이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자연의 보고이다.



김 시 권

- 교육공무원 정년퇴임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강원관광사진전국공모전 우수상외 다수 입상



Lake two jack

“좋다 이 느낌...”

가는 길 오는 길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는 일상의 모습.

그것은 여유로움이다. 캐나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반하고 높디높은 로키 산맥의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옥빛호수에 반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도로 옆 호수주변 제 세상인 냥 누비고 다니는 사슴, 엘크, 빅혼쉽 사파리 투어가 따로 필요 없다 자연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도 않으며 켜 걸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진 찍기 바쁜 욕심 많던 나를 제외 한다면...

벤프 애비뉴에서 재스퍼로 가는 93번 도로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의 명작들의 호수가 반겨준다 내가본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캐나다 호수마다 설치된 피크닉테이블과 벤치엔 즐거움이 묻어있었다.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사진을 목적으로 떠났던 캐나다 여행이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여유로움이 아닐런지 밴프 애비뉴에서 미네완카 호수로 가는 길에 만난 투잭 호수, 어느 한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 마음을 두고 온 풍경, 투잭 호수에게 한마디 남겨 보았다.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김 정 희

- 한국문인협회 양양지부 5대지부장역임
- 양양문화회 회장역임
- 양양예총 부회장역임
- (현)한국문인협회회원, 강원문인협회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 (현)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지부장



입찰

이른 아침 항구에서 입찰하는 모습을 위에서 촬영함.



박 명 호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눈길여행

눈이 온다
온 세상이 하얗다.

눈이
들릴 듯 말 듯 재잘거리며
나무위에 내려앉는다.
작은 재잘거림도
쌓인 눈 위에 스며들 것 같다.

백색의 고요함을 뚫고
버스가 지나간다.



홍 순 복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단풍

채 재 순

파우스트를 팔십이 세에 완성한 괴테
팔십에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한 베르디
성 베드로 대성전 돔을 나이 칠십에 완성한 미켈란젤로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빛난다

후반생 지점에서 명작을 만든 신명
신은 우리 마음에 있다
신바람으로 나뭇잎 반짝인다

아직, 현역이다



채 재 순

1994년 <시문학> 등단
시집<그 끝에서 시작되는 길> 외 2권
속초문협 지부장, 설악문우회(갈매) 회원

흔들리는 청호동

최 명 선

반세기 넘게 흔들리는 반도의 땅이었다

가리라, 가리라 몇 년이던가
망향가도 목이 쉰 아바이 마을

오징어도 명태도 고향으로 갔는지
빈 덕장엔 바람만 오가는데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싶다
날마다 보채는 다섯 살 아버지를
갯배에 태워 달랬다는 칠순의 아들
실향을 울던 아버지는 고향에 잘 도착했는지

사투리를 벗어버린 청호동에서
문득 내가 섬이 되는 녹녹한 오후

눈이 먼저 읽은 낯선 풍경 뒤로하고
선착장으로 난 길을 무겁게 끌고 갈 때
어디선가 들리는 끝물 같은 망향가

바다 쪽으로 귀를 세운 작은 창 앞에 서서
취기 서린 소리 하나 비문처럼 받아 읽고
달 내린 갯배의 쇠줄을 당긴다



최 명 선

〈문학세계〉 등단
시집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 외 1권
속초 문인협회, 설악문우회(갈매) 회원

주인 떠난 그곳에

정 명 숙

거실 문갑 위에 놓여 있는
얼굴 하나
남편에게는 진귀한 수석(壽石)이지만
풍화(風化)가 만든 깊은 주름
내 눈에는 그저 일그러진 화상이다.

어느 골짜기
바위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물결 속을
얼마나 오랜 시간 구르고 굴렀을지
내력이 궁금하다.

사람이든 돌이든
제 얼굴 자기가 만든다지만
누군들 미간에 내천(川) 자 새기고 싶었을까

남은 생, 더는 구르지 말고
자연의 품에 안겨 살아보라
묵정밭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

주인 떠난 그곳에 내가 앉아 있다.



정 명 숙

2006년 <문학마을>로 등단

시집 <섬이 바다에 머무는 것은>

속초문협 회원, 설악문우회(갈매)동인

진해역

정 영 애

철길의 벚꽃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약속처럼 진다
기차는 앞으로만 달리고
나 혼자 흔들리며 뒤로, 뒤로 간다

마지막 완행열차가 떠난 대합실
몇 번의 봄을 기다리던 여자아이가 이윽고 떠났다
온몸으로 매달리던 창밖의 이별도
느릿느릿 늙어서
잔주름 같은 그리움이 되었다

창틀에 턱을 짚 채
아직도 차창을 두드리며 달려오는
한 소년의 맨발이
흩어져 내리는 벚꽃잎 사이로 멀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본다
완행열차는 아직도 가슴 속을 달리고 있는데
봄만 남기고 사라진 역

나는 영원히 내리지 못하네

*진해역: 2015년 2월 1일 폐역



정 영 애

2008 제14회 지용신인문학상 당선
시집 <나는 뒤통수가 없다>
속초문협 회원, 설악문우회(갈매) 동인

최저임금 1

조 외 순

너무 험령한 바지를 샀나보다
데칼코마니의 하루를 그리며
늘어날 통장의 인치를 잴다
신축성 없이
빛바랜 일자바지를 벗기 위해
소비운동도 줄여 가며
나이 들수록 허기지는
뱃살과 허리 사이즈를 늘리기로 했다

본능만이 살아내는
삼겹살도 먹어보고
매운 고추도 먹어보고
푹내 나는 쓴 맛
눈물과 함께 억지로 삼켰다

야금야금 세월을 숙성시키며
통통해 질 것만 같던
허리의 꿈을 향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리띠가 조였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52Kg 몸무게를 걱정하며
험령하여 빙빙 곁도는
세상의 사이즈를 읽는다



조 외 순

2011년 <순수문학> 등단
속초문인협회회원, 설악문우회(갈매)회원

청호동이 수상하다

권 정 남

해가 넘어가자 오색 조명이 청초 호수에 기지개를 켜듯 살아나고 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수백 개의 만장輓章이 펄럭이며 물 위에 미끄러지고 있다. 주말 오후라 갯배 선착장에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갯배를 기다리고 있다.

청호동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북쪽에 두고 떠난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1.4 후퇴 때 삼일 후면 함경도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영영 가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기원하며 모래톱에 부리를 맞댄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들으며 고향 소식을 기다리던 이산 일 세대는 이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속초 청호동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1981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만추>에서 흑백 사진 속 옛 청호동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 세트장 은서네 집이 공개되면서부터 관광객들이 청호동을 찾기 시작했다. 그 후 2010년 KBS 예능프로인 <1박 2일>에서 청호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외국인들이 몰려왔다.

내가 25년 전 속초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갯배 타고 청호동에 들어서면 비릿한 생선 냄새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낮은 집들이 즐비했다. 문밖에는 가족들이 벗어 놓은 신발들이 웅기종기 놓여 있었고 집 앞 모래사장에는 줄에 매달린 오징어들이 파란 하늘 아래 풍경처럼 가득 널려 있었다. 청호동 사람들은 합지나 나무상자에 오징어나 생선을 담아 갯배에 싣고 중앙시장에 갖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빗바랜 사진 속 같은 청호동이 마스크를 탄 후부터는 속초 관광 일번지로 급부상하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강릉에서 고 장정권 시인을 만났다. 그는 어릴 때 속초 청호동에서 살았다면서 갯배를 끌던 선장 ‘강 씨’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시로 써보라고 했더니 그분은 시로 쓴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갯배 선장 강 씨는 1.4 후퇴 때 사흘 후면 함경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피난민들 틈에 섞여 속초 청호동에 내려와 정착을 했다고한다. 선장 강 씨는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어버려 의수義手와 의족義足を 한 채 남은 왼쪽 팔과 다리로 속초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갯배 선장이 되었다. 실향민들이 청호동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중앙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이른 아침 갯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 선장 강 씨는 쇠갈고리로 갯배 바닥에 놓인 쇠줄을 당겨주고 생선 상자와 등꼴길 학생들을 태워 나르는 일을 해왔다.

어느 해 8월이었던가, 파도가 모래톱을 삼킬 듯 장맛비가 내리던 날 아침 등꼴길 학생이 선착장에서 갯배를 타려고 바다를 건너뛰다가 가방을 든 채로 바닷물에 빠져버렸다. 선장 강 씨는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왼쪽 팔과 다리로 헤엄쳐서 학생을 건져 갯배 위로 밀어 올렸지만, 본인은 배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다. 헤엄을 쳤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의수와 의족인지라 바다에서 갯배로 올라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끝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며칠 후에 속초 동명동 수복 탑 앞바다에 그의 시신이 떠올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북쪽 고향 바다를 향해 헤엄치다가 육신은 수복 탑 앞 바닷가에 그대로 두고 영혼만 훨훨 고향 땅으로 갔으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선장 강 씨를 떠나보내며 실향민들은 갈 수 없는 북쪽 고향 땅이 더욱 그리워 모두 쉽게 울었다고 한다.

장례를 치른 후 이웃 사람들이 홀로 살고 있던 그의 다섯 평 남짓 한 좁은 판잣집을 찾았다. 담뱃불에 그을린 꽃무늬 비닐 장판에는 두고 온 돌배기 아들 이름과 함경도 새색시인 아내 이름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KBS 이산가족 기사가 실린 벽보와 빛바랜 신문지가 벽에 붙어 있었으며 통일되면 고향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려고 모아둔 비릿한 지폐 몇 장이 꼬깃꼬깃 접힌 채 장판 아래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선장 강 씨는 1982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한창일 때 그리움을 벽보로 붙이며 불 땀별 여의도 광장 방송국 앞에서 살았다고 한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른 사람을 살려낸 의인 갯배 선장 강 씨는 영혼이나마 뒤늦게 북쪽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장년이 된 아들과 중년이 넘은 아내를 만나 반갑게 해후했으리라고 믿는다. 살신성인殺身成仁 선장 강 씨의 얘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사흘 후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이산가족 일 세대는 이제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청호동 실향민들은 저마다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명 자국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하나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청호동이 수상하다. 7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 실향민들의 제2의 고향인 청호동의 원래 모습



권정남

1987<시와의식>등단
 <속초바람>외 3권, 수필집 <겨울 비선대에서>
 속초 문인협회 고문, 갈매 동인 고문

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갯배 선착장 주변엔 커피숍이 들어서고 주말이면 갯배를 타기 위해 관광객들이 길게 줄로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들은 부둣가에서 청호동의 속 얘기보다 그림엽서 같은 청호동의 겉모습만 연신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각종 볼거리와 먹을거리,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청호동은 속초의 제1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어둠이 스며들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신수로 넘어 아치형 금강교와 설악교의 야경은 장관이다. 마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이산 일 세대의 꽃상여가 청호호수 물 위에 흔들리며 떠가는 것 같다. 꽃상여를 호위하듯 오색조명이 만장晩章처럼 깃대를 앞세우며 물 위에 미끄러지는 모습은 처연하다. 70여 년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렇게 한 사람씩 망자忘者가 되어 영랑호수 주변 이북 5도민 묘지에 봉분으로만 남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해당화 피고 지던 모래사장을 지나 남과 북 원산까지 달리던 철로도 건너지고 동명동에 있던 속초역도 사라졌다. 지금은 사라진 속초역과 청호동 신향민들의 빛바랜 삶의 모습이 속초 시립 박물관 전시실에 풍경으로 멈춰있을 뿐이다. 몇 해 전 고 장정권 시인이 쓴「갯배 선장 강 씨」를 속초 시립박물관에 갖다 줬다. 한 사람을 구한 의인 선장 강 씨, 그의 살신성인殺身成仁 눈부신 인간애가 박물관 벽에 등불처럼 걸려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청호동은 요즘 속초 경기 상승에 일조를 한다. 하지만 모래톱에 끼룩대던 갈매기 소리와 부둣가에 즐비하던 지붕 낮은 집들, 처마 아래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낡은 신발들을 나는 잊질 못한다. 그리고 질퍽한 어장에서 오징어 배를 가르며 그물을 집던 함경도 아바이 아바이들의 바쁜 손길과 파란 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던 오징어들이 그립다. 그리고 조금은 촌스러운 흑백 사진 속 아물지 않는 생채기 같은 청호동 속살을 나는 사랑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노 금 희

직장생활은 한다는 핑계로 자주 대청소를 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어 살림살이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 평소엔 잊고 지내던 짐들이 어디서 그리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소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건들이 언젠가 쓰임새 있다고 생각했다. 버려 지는 건 없이 들어오는 것만 있으니 집은 늘 과식 상태다.

화장품 상자나 선물 박스, 포장 리본, 깨끗한 택배상자, PET 음식용기, 얼음팩, 종이백, 비닐 봉투,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그냥 무심코 버려지면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 우유팩이나 재질 좋은 화장품 상자 등은 서랍용 수납박스로 쓰고, 보관해둔 얼음팩은 여름에 긴요하게 쓰고, 그래도 남은 팩은 자주 가는 생선가게에 갖다 드렸다.

열렬한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구석진 곳에서 자리 지키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나는 몰랐다. 가끔 TV에서 온갖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장강박증’을 보면서 나 스스로 반성할 때가 있다. 정리수납의 달인들은 ‘몇 가지 물건은 2-3년 지나서도 쓰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를 하기 전 조금씩 비우면서 오래 손대지 않는 것은 빨리 재활용품으로 보내는 게 현명한 일인가 싶다.

이런 나의 습관에 반해 남편은 무엇이든 즉시 버리는데 필요한 걸 찾다가 없으면 남편이 버렸다고 타박을 해왔다. 꼭 버리고 나면 찾을 때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며 나를 위안을 했던 가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사를 자주 해야 집안 정리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정리를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해묵은 추억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바닥에 주저앉아 책장정리를 하면서 버릴 책과 잡지 등을 묶어 놓은 틈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흔적을 찾아냈다. 고등학교 시절 문집 1권. 지금의 인쇄기술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문집이었다. 인쇄소에 원고를 넘겨 타자기를 이용할 비용이 없었는지 B5용지에 내 손글씨로 만든 색 바랜 문집. 교장선생님 격려사, 목차, 학년별, 편집후기, 인쇄소까지 기록해 제법 책 흉내를 낸 것



노금희

물소리시낭송으로 작품활동 시작
속초문협 회원, 설악문우회(갈매)동인

인데 하마터면 영영 놓칠 뻔했다. 그 꼬맹이 문학소녀들을 떠올리며 부풀었던 꿈의 조각들을 찾아 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학교를 다녀온 내가 문집을 만들겠다고 골방에 쏘그리고 앉아 꺾꾹 눌러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버지가 써주신 것이 몇 편 있었다. 뒤늦게 문집을 통해 아버지의 젊은 시절 개성 있는 멋진 필체를 보았는데 연세가 들면서 글씨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글씨도 늙어 가는구나’

그래서인가, 문학관에 가면 문인들의 육필원고를 더욱 찾아보고 싶어진다.

이 세상에 허투루 태어나는 게 있을까?

물건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영혼이 있으니 그 쓰임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싶다. 열매는 사람들이 걷어 가더라도 땅에 떨어진 못난 씨앗이 또 다시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되고, 아래에는 작은 들꽃, 풀 한 포기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한다. 살아있는 생명은 아닐지라도 물건 또한 제 이름을 갖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도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가졌을까?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눌 건 나누고, 다시 품을 건 제 자리 찾아주고, 버릴 것들을 분리수거하며 끝내 소생하지 못한 물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본 가을이었다.

이제 다시, 구석구석마다 나를 기다리는 것들을 찾아 정리 할 때가 왔다.



제29회 설악학생백일장 제24회 설악주부백일장 우수작품

초등 시 장원

비밀번호

양양초등학교 3학년 1반 박지유

나만의 비밀번호
엄마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
아주단순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매일 같이 말한다.
잠겨있는 엄마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엄마의 비밀번호
나의 꿈꿈 잠겨있는 마음을 열기위해
비밀번호를 푼다.
꿈꿈 잠겨있는 내 마음은
맘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다.
엄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지유야, 밥 먹자!!
나는 이 한마디면 마음이 풀린다.
엄마는 이 한마디로 내 마음을 자꾸 푼다.
마음을 열기 싫어도 스스로 마음이 풀린다.

초등 시 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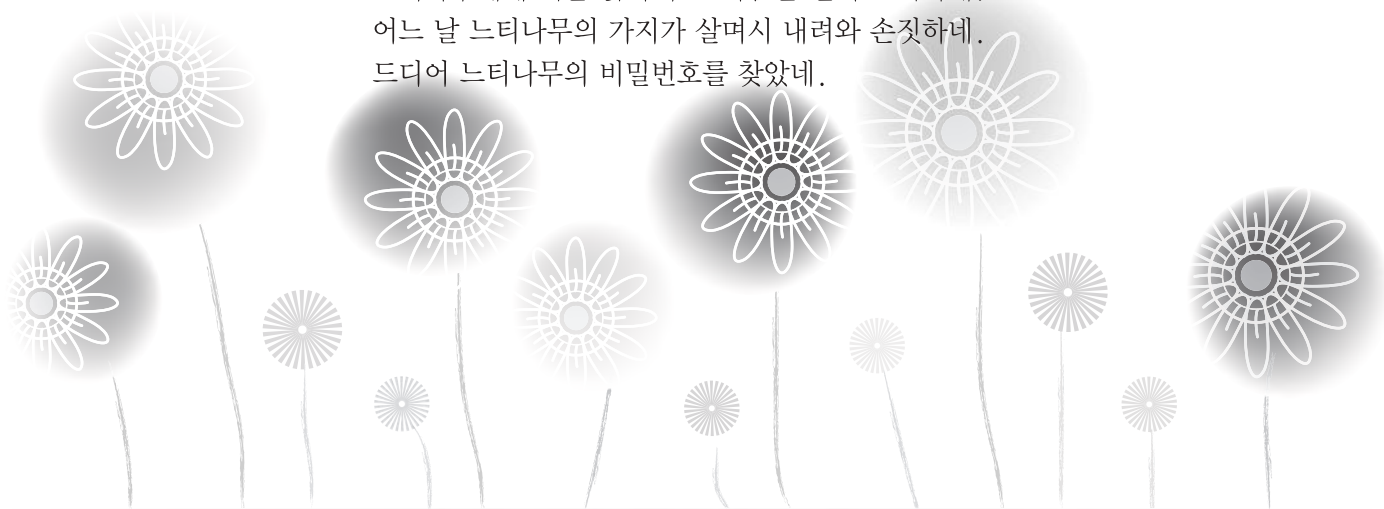
비밀번호

한남초등학교 5학년 1반 박해린

비밀번호
매일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쓸쓸한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느티나무는 마음을 열지 않네.

매일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쓸쓸한 느티나무
느티나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는 없을까?
나는 매일 생각 하네

매일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쓸쓸한 느티나무
느티나무에게 책을 읽어 주고 마음을 열려 노력하네.
어느 날 느티나무의 가지가 살며시 내려와 손짓하네.
드디어 느티나무의 비밀번호를 찾았네.



초등 산문 장원

지갑

청봉초등학교 2학년 2반 김지율

나는 멋진 아홉 살입니다.

아직 지갑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과자를 혼자 살 때, 엄마가 장난감을 안사줄 때입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셔서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지갑은 엄청 엄청 뚱뚱합니다. 열어 봤더니 돈, 카드, 동전, 영수증, 면허증 등등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사진이 꽂혀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노란색에 레고 그림이 있는 지갑을 가질거예요. 애기 사진을 넣을래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반지도 사줄거예요.



초등 산문 장원

더하기

교동초등학교 5학년 2반 최해린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날씨: 맑음

‘덜커덩, 덜커덩!!’ 오늘 우리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소리를 내어서 동네방네 ‘우리 이사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사 온 사람들이 떡을 돌렸는데 우리엄마께서는 요즈음 누가 떡을 돌리냐고 의아해 하셨다.

하긴 우리 집은 아빠께서 군인이셔서 이사를 10번 이상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떡을 한 번도 안 돌렸으니 그럴만하다, 암, 그렇고말고, 이사 온 사람들은 엄마와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피부가 까매서 우리 집 까만 강아지 낄똥이 같았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 오늘 학교에 갔는데 그 까만 아이가 우리 반에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도 아빠가 한국인이시고 엄마가 미국인이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셨다. 나는 두꺼운 입술에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옆에 있으니 신기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잘생긴 준석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준석이가 치사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 까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인기가 제일 많은 준석이에게 화를 내고 떡살을 잡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항상 얌전한 내가 그렇게 하니 아이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뽀뽀뽀뽀한 글씨로 쓰인 쪽지를 받았다. ‘고마워’ 그렇게 쓰여 있었다.

집으로 갈 때도 그 아이가 계속 따라 오길래 뒤를 돌아 봤더니 까만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해있었다. “괜찮아, 고마워” 동시에 말하였다. 마음이 더해진다는게 이런 걸까?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그 아이도 나처럼 마음이 더해졌다는걸 느꼈는지 부끄러웠는지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꼭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 봐야겠다. 꼭 꼭 말이다.

오늘의 일기 끝~

중등 시부 장원

비밀번호

설악여중 1-2 진유현

아무도 풀 수 없다
꽁꽁 잠겨있다
꼭 막힌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막혔다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비밀번호
네가 알려주기 바라는 건
큰 바람일까?

고마워
힘내
내마음속의 비밀번호가 조금씩 풀어진단다

오늘도 수고했어

마음이 편해졌다
드디어 풀린 것일까…?

중등부 산문 장원

더하기

속초여중 2-1 심예원

우리는 항상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더하면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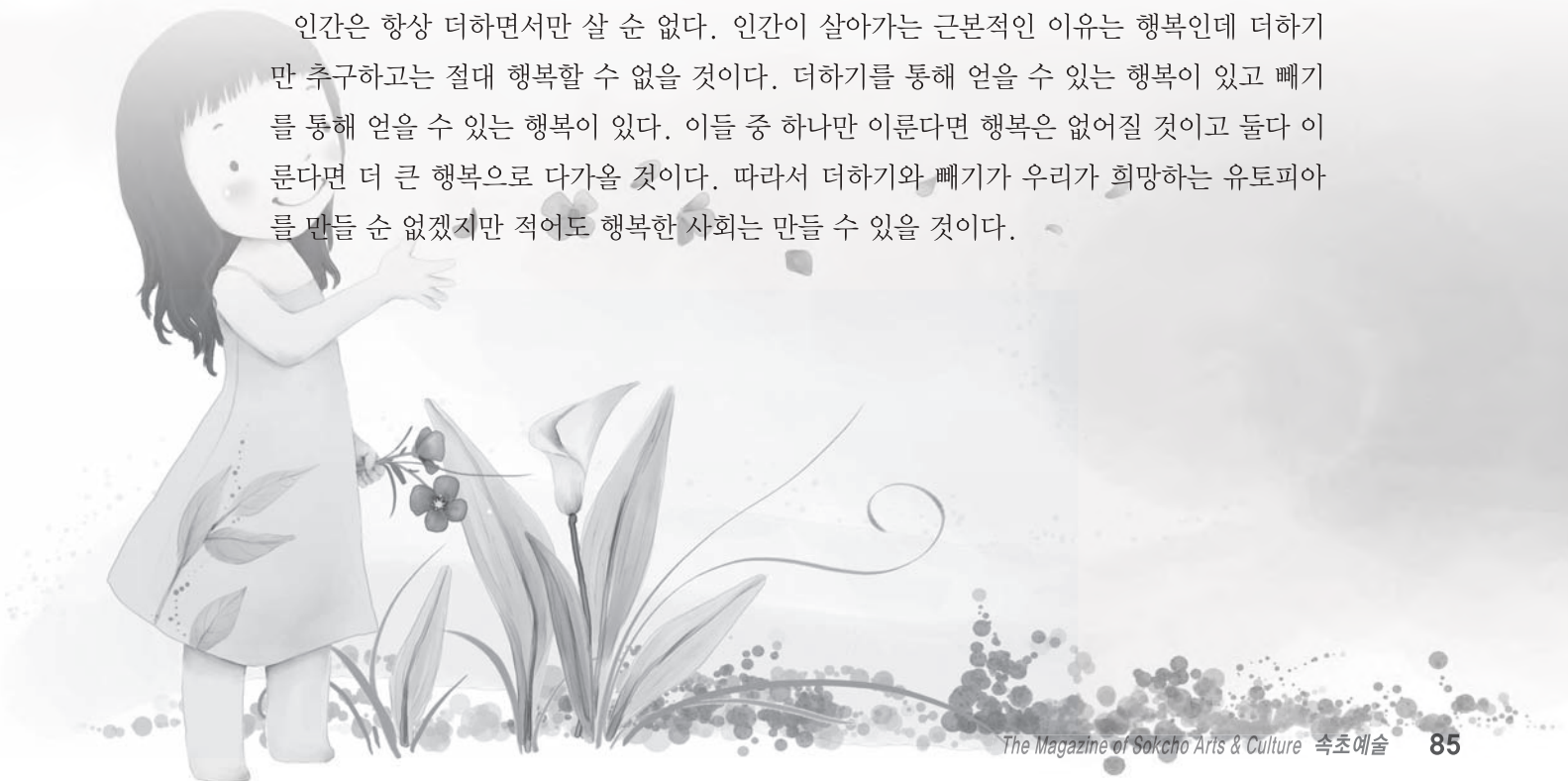
수학에서의 더하기, 지식의 더하기, 인간관계에서의 더하기 등... 더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산다.

더하기가 있다면 빼기도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원리이다. 하지만 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어쩔수없이 본능적으로 어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더하기만을 원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개 개인의 욕심으로 넘쳐나게 되어 결국 그 사회는 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하기와 빼기에는 항상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빼기를 통해 누군가는 더하기를 얻는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기부이다. 누군가에겐 그저 작은 빼기일뿐이지만 그 작은 빼기가 누군가에겐 큰 더하기로 다가오게 된다. 그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진다.

인간은 항상 더하면서만 살 순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인데 더하기만 추구하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더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이들 중 하나만 이룬다면 행복은 없어질 것이고 둘다 이룬다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더하기와 빼기가 우리가 희망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순 없겠지만 적어도 행복한 사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등 시부 장원

더하기

설악고등학교 3-10 최단비

사람이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있다
사람이 수학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에
사람 더하기
체온 더하기
칭찬 더하기

다시 사람에
가식 빼기
온정 나누기
우정 곱하기
그렇게 사칙연산을 하다보면
만족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나도 나를 수학처럼 더하고 빼고 싶다



고등부 산문 장원

더하기

속초여고 1-5 최유정

우리곁에서 찾을수 있는 삶의 플러스 요인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삶의 더하기 요인의 정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수있는 것, 내가 행복한 것 혹은 내 인생을 바꿔준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부정적인 삶에서 잠시나마 밝게 웃게 해 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난 정의 내린다. 난 내가 살면서 느꼈던 플러스 요인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나의 플러스 요인은 성격,음식,꿈,엄마다. 첫 번째, 성격은 내 인생을 바꿔준 하나의 계기다. 내 원래 성격은 소심하고 조용하며 아는 애들만 나는 존재감없는 그런 애였다. 하지만 무슨 계기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성격은 확 변했다. 누구나 아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 덕분에 나는 많은 친구를 사겼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경험도 못해봤을 것이다. 두 번째, 음식. 음식은 단순하다. 내 부정적인 삶에서의 한 줄기의 빛들 중 하나다. 내가 지칠 때, 힘들 때, 내가 좋아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잠시나마 나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한순간일 뿐이다. 금방 사그러진다. 하지만 한 순간 만이라도 잊기 위해서라면 나는 음식을 찾는다.

세 번째, 내 꿈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앞으로 이 꿈을 위해 공부한 날, 해야할 것들이 많지만 난 행복할 것이다. 진정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 내 삶의 플러스요인. 마지막은 우리 엄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건 엄청난 차이다. 내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잡아줄 '이건 아니다'라며 충고해줄 그런 사람이 우리 어마다. 나도 엄마가 내 삶에서 플러스 요인인 만큼 나도 엄마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도 엄마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삶에서의 더하기 요인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수 있고, 내가 놓친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소소한 것이라도 남이 무시하더라도 나만의 더하기 요인을 찾을수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나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부백일장 시 장원

비밀번호

이수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릴없이 손톱 끝의 거스러미나 떼어내며
이 생의 부스러기들을 생각한다.
핵심도 없이 생의 언저리에서 마른 부스러기나 날려 보내며
아름다운 이생의 시간을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봄바람처럼 스친다
가장자리.
사실 핵심도 아닌 것들이 움을트고 꽃을 피우며 봄을 알리고
가장자리의 것들이 나무의 키가 되고 삶의 부피가 된다
아, 사소한 삶의 부스러기가 생을 키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사소한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며
사소한 것들로 상처받고 슬퍼하며
사소한 것들로 삶의 무게를 짓눌러 버리는
봄날의 분진 같은 소소한 것들,
그것들이 삶이었음을
한 물음에 하나씩
한 계절에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 완성되는 완성의 시간
오늘은 어떠한 비밀번호로
삶의 덧문을 열 수 있을까



주부백일장 산문 장원

지갑

허이재

“그 옷이 어디에 있더라”

계절이 바뀌면 하는 일. 철지난 옷을 정리하고 입을 옷을 꺼내는 일이 왜 이리 매년 버겁게 느껴지는 것일까 왜 매년 이리 두서없이 정리했을까...라는 생각에 다음해에는 더욱더 체계있게 정리해야지...나를 반성하며 열심히 서랍을 뒤적였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서랍 저 맨 아래에 검은 무언가가 보여서 꺼내보니 오래되고 낡은 검은색 지갑...아빠의 지갑..

“이게 여기에 왜 있지?”라며 펼쳐보니 아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지갑.

젊을 때 찍은 증명사진부터 돌아가시기 얼마전 해에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아빠의 인생이 담긴 것 같아서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

그 지갑하나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얼른 경제활동을 해서 아빠에게 멋진 가족 지갑을 사드릴걸이라는 죄책감부터 너무 일찍 우리결을 떠난 원망과 아빠를 생각하고 추억할 수 있음에 주는 행복까지... 또한 내 생활이 바빠서 내 아이를 키우느라 잊고 지낸 세월에 대한 허무함.

옷 정리를 하다가 마주한 아빠의 지갑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언제나 자상한 아빠, 아빠의 지갑을 나에게 때로는 가뭄의 단비같은 용돈도 주시고 때로는 초콜릿같은 사랑의 간식을 때로는 항상 풍족한 아빠의 지갑에 대한 호기심에...

오랜만에 보게된 아빠의 지갑이 향수를 일으키다가 또 일상적인 생활에 또 잊혀졌다.

어제는 지방선거 투표일, 안개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시간 친정엄마, 남편, 아이와 나는 투표소를 향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엄마가 지갑을 꺼냈는데 눈에 익은 지갑이었다,

자세히 보니 서랍 제일 아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아빠의 지갑이었다.

내가 무심히 지나가듯이

“엄마, 그거 아빠 지갑 아니야?”라고 물으니 나와 눈을 못 마주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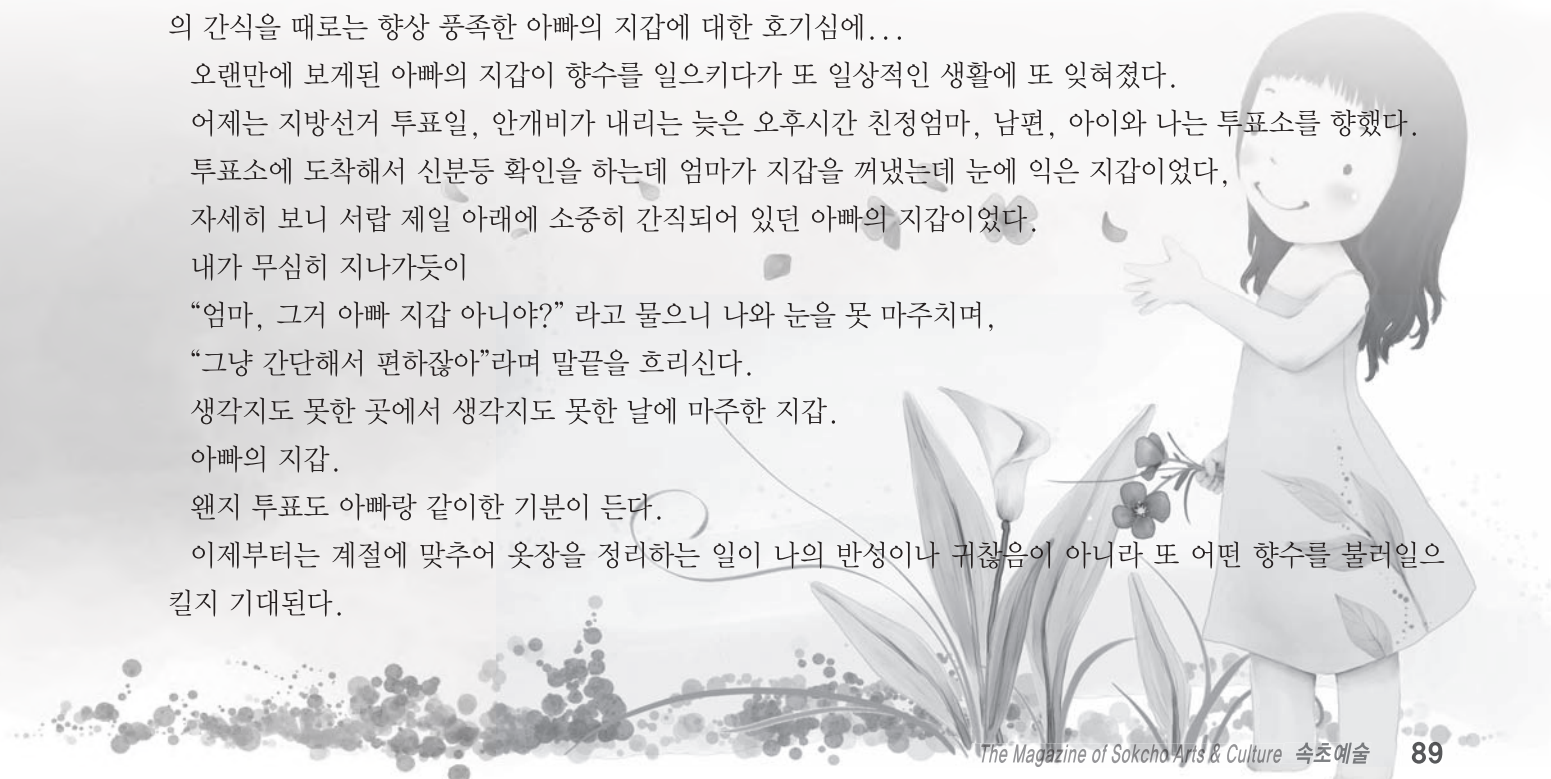
“그냥 간단해서 편하잖아”라며 말끝을 흐리신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날에 마주한 지갑.

아빠의 지갑.

왠지 투표도 아빠랑 같이한 기분이 든다.

이제부터는 계절에 맞추어 옷장을 정리하는 일이 나의 반성이나 귀찮음이 아니라 또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킬지 기대된다.



제29회 설악학생미술작품공모 우수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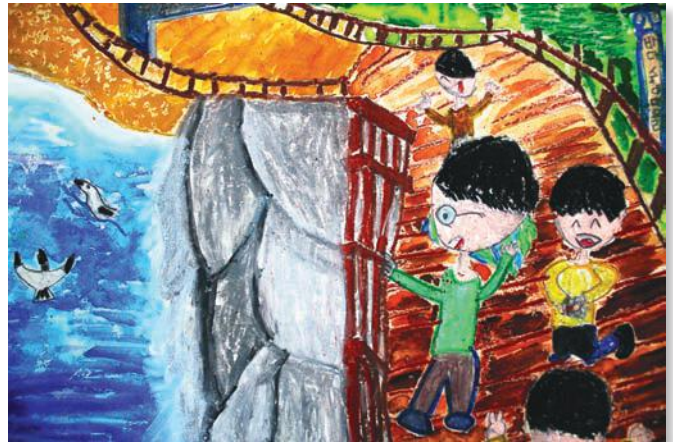
진초의(7세) 리라유치원



이에서(7세) 속초유치원



나혜인 간성초 1-2



최지후 교동초 2-4



김효진 교동초 3-1



김가현 교동초 5-2

제29회 설악학생미술작품공모 우수작품



강재윤 중앙초 4-2



이상하 청봉초 5-4



권경림 속여중 3-2



이혜진 양양여고 2-2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18년)는

한국예총 속초지회 | 편집부

■ 속초예총 사무 감사



(사)한국예총속초지회는 1월 26일(금) 오전 10시 권오돈감사, 박치영감사가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2017년도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 속초예총 1월 회장단 회의



속초예총 1월 회장단 회의가 1월 29일(월)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제1차 이사회 자료 검토 및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제안서 확인, 종합예술제 일정을 논의했다.

■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의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의가 2월 5일(월) 오후 4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됐다. 재적이사 27명중 14명이 참석해 2017년 감사 보고 및 주요 업무 경과보고, 2017년 수입·지출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장례규정 변경(안)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 속초문인협회 청소년 문학창작반 운영

속초문인협회는 지역문인과 함께 1월~12월까지 매월2,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청소년에게 문학창작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간담회

속초예총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간담회를 2월 20일(화) 오전12시에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선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제안서 검토 및 논의를 하였다.

■ 속초예총 제29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29차 정기총회가 2월 23일(금)오후4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60명 중 58명(참석 38명, 위임 20명)참석했고, 의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9차 정기총회를



시작했다. 2017년 감사 보고 및 주요 업무 경과보고, 2017년 수입·지출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장례규정 변경(안)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 속초예총 3월 회장단회의



속초예총 3월 회장단 회의가 3월 22일(목)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제29회 종합예술제 일정변경 및 예산 분배,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 제35회 강원연극제



제35회 강원연극제가 3월 25일(일)부터 31일(토)까지 원주 어울림 소극장과 치악예술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극단 소울씨어터 '만주전선'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단장 남호섭회원이 최우수 연기상, 극단 파람볼 '의자는 잘못었다'가 은상을 수상, 민경회원이 우수연기상 수상 하였으며, 극단 청봉 '할배동화'가 동상을 수상했다.

■ 속초예총·속초시노인복지관 양해각서 체결



속초예총과 속초시 노인복지관은 3월 29일(목) 오후 2시 속초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할머니가 보여주는 속초 이야기'



속초예총은 강원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인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이사이'에 선정되어 4월 6일(금)부터 10월 26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속초지역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속초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 파인리츠 리조트 지역작가 초대전



속초예총에서는 지역 사업체와 예술이 만나는 활동으로 파인리츠

리조트의 4계절을 지역전문 사진작가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작품성 있는 사진을 얻고자 촬영대회를 4월 19일(목)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한다. 이 활동으로 얻게되는 작품은 파인리조트와 이 지역 홍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 속초등대 힐링콘서트(4월)



해양수산부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등대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최하는 속초등대 힐링콘서트(부제 : 봄바람의 향연)가 4월 21일(토) 오후 3시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위아이스댄스팀, 김현미(트로트가수), 원니스밴드(4인조밴드), 플레티넘(팝페라)의 공연을 진행했다.

■ 제29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 및 심사



속초미술협회 주관 제29회 설악청소년 학생미술작품공모전은 4월 21일(토)~5월 11(금)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창의성 개발 및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며, 지역 미술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 미술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 했다. 입상작들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 정규 개인 사진전

속초사진작가협회 정규 회원의 개인사진전이 5월 18일(금)~24(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물과 빛의 신비로운 언어라는 주제로 물방울 드롭아트 40여 작품을 선보였다.

■ 속초예총 5월 회장단회의



속초예총 5월 회장단 회의가 5월 24일(목) 오후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제29회 종합예술제 협회별 사업내용 공유 및 사업비 지출방법과 정산 방법 공지,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사업 진행과정 보고를 가졌다.

■ 속초등대 힐링콘서트(5월)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최하는 두 번째 속초등대 힐링콘서트 (부제 : 실록의 푸르른 등대)가 5월 26일(토) 오후 2시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시를 노래하는 가수 이동원, 설악 알로하 우쿨렐레, 통기타 듀오 별바라기, 트로트 가수 김현미의 공연을 진행했다.

■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예선





속초예총은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예선을 5월 29일(화)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70개 팀이 참가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20개 팀을 본선에 진출 시켰다.

■ 제29회 설악학생 및 제24회 주부백일장



속초문인협회 주관 제29회 설악학생 및 제24회 주부백일장이 6월 14일(목) 오전 10시 엑스포광장 분수공원에서 열렸다. 총 480여명이 참가하여 시와 산문부분 및 초·중·고등부 및 일반부 모두 '비밀번호', '지갑', '더하기'란 시제로 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에게는 글쓰기 체험의 기회를 주부들에게는 잠재적인 문학창작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제29회 속초종합예술제

속초예총에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인 제29회 속초종합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6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종합예술제는 6월 14일(목)~7월 4일(수)까지 속초문화회관과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진행.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정봉재)와 속초시 주최로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작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가 주관,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각 협회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 제1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제13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이 6월 16일(토)~21일(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해 매력적인 자연경관과 생동감 있는 모습의 사진 50여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다.

■ 2018 코리아챔버싱어즈 초청공연

속초음악협회 주관으로 클래식 기타 합주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코리아챔버싱어즈 합창 공연이 6월 16일(토) 오후 2시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 제15회 국악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 “춤, 소리로의 초대”



속초국악협회가 주관 제15회 국악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6월 16일(일) 오후 7시 30분 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춤, 소리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현대적 감각의 전통 타악 및 창작, 재구성 작품을 통한 차별화된 타악 퍼포먼스, 신북청사자놀이, 판소리 동화, 태평무, 상모판굿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 제8회 우리 춤 속으로



속초무용협회가 주관 ‘우리 춤 속으로’ 공연이 6월 17일(일) 오후 2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열렸다. 한국 전통무용인 삼고무, 태평무, 진도북춤, 단오놀이, 설장구 등 무용예술의 우수성과 흥의 정서를 담은 춤사위와 한국적 멋과 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 2018 설악청소년무용제(러시아 청소년무용단 합동공연)



속초무용협회 주관 2018 설악청소년 무용제와 러시아 청소년무용단 합동공연이 6월 17일(일) 오후 3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열렸다. 지역 청소년들의 한국무용과 발레, 실용무용 등 장르 구별 없이 다양한 몸짓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무용축제의 장 및 러시아 청소년무용단과의 합동공연이 진행됐다.

■ 러시아 민속공연단 초청공연



속초예총에서는 러시아 민속공연단 ‘오조르니키’를 초청하여 6월 17일(일) 오후 6시 30분 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돌라, 발랄라이카, 바얀 등 러시아 전통악기를 활용한 러시아 민속음악 공연을 진행했다.

■ 극단 파람볼 초청공연 ‘미래의 장례식’



극단 파람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 「미래의 장례식」을 6월 19일(화)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연했다. 이 작품은 문화 공감함을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서발달 연극 공연

(T.I.E 연극)이다.

■ 극단 하나 초청공연 '가난 포르노'



극단 하나에서는 「가난 포르노」라는 2018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작으로 관객들을 찾았다. 6월 19일(화) 오후 7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연된 작품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사회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 극단 청봉 초청공연 '할배동화'



극단 청봉은 제35회 강원연극제 동상 수상작인 「할배동화」로 6월 21일 오후 7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분단의 아픔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별노인 만의 동화로 아름답게 풀어낸 작품공연을 했다.

■ 극단 소울씨어터 초청공연 '만주전선'



극단 소울씨어터는 제35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인 「만주전선」을 6월 23일(토) 오후 6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선보였다. 1940년대 만주벌판에 풍운의 꿈을 가득 안고 떠난 조선 젊은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 그들의 현실과 역사의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 작품을 공연했다.

■ 제43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展 '설악을 그리다'



속초미술협회 주관 제43회 한국미술 속초지부展 '설악을 그리다'이 6월 23일(토)~28(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을 그리다'의 의미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설악을 그리워하며 그림을 그리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미술 전시회로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부문 총 7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 정봉재, 박동국 수채화展

속초미술협회 정봉재님과 박동국님의 수채화展이 6월 30일(토) ~ 12월 31일(월)까지 대명콘도 델피노리조트 A동 7층에서 열렸다.

■ 제23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속초미술협회 주관 제23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6월 30일(토) ~ 7월 4일(수)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 상위 수상자와 일본, 필리핀, 러시아 학생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서로 다른 미술세계를 접하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획의 미술 전시회였다.

■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본선



한국예총속초지회, 연해주고려인문화센터,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주관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제1회 우수리스크 고려인 국제가요제’ 본선 대회를 7월 3일(화) 러시아 우수리스크 군인극장에서 열렸다. 우수리스크,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 곳곳에서 18개 팀이 참여. 10대에서 80대, 고려인과 슬라브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K팝과 트로트 등 한국가요부터 연변, 북한노래까지 여러 참가곡으로 본선을 진행했다. 군인극장에는 900여명의 관람객으로 가득했고, 연예예술인협회에서 편곡과 세션으로 참여하여 가요제의 맛을 더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속초예총과 연해주고려인문화센터,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워크숍

속초예총은 7월 13일(금)오후5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진행과정 및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문화 환경 변화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강강사로 속초문화원 김인섭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지역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문화활동가 등 18명과 함께했다.



■ 채재순 시인 네 번째 시집 발간

속초문인협회 소속 채재순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복사꽃소금’을 펴냈다.

■ 속초예총 8월 회장단회의



속초예총 8월 회장단 회의가 8월 30일(목) 오후 5시 속초예총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및 송년예술제, 속초예술 18호 계획안 수립 논의했다.

■ 2018 강원예술인 대회 ‘강원도의회 의장상, 공로상 수상’



9월 15일(토) 오후 5시 춘천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2018 강원예술인 대회에서 속초예총 정봉재 지회장은 강원도의회 의장상을, 속초미술협회 박혜정 사무국장은 강원예총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 제21회 ‘갈매 설악 숲 시화전’



속초문인협회는 제53회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기간인 9월 29일(토)~30일(일)동안 설악산 비룡폭포 일대에서 ‘숲 속 시화전’을 열었다.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시와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의 재미를 더해줬다.

■ 조정승 작품전 ‘수묵 설악에 묻다.’

속초미술협회 조정승 회원님의 개인 작품전 ‘수묵 설악에 묻다.’이 10월 1일(월) ~31(수)까지 강원진로교육원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 2018 강원원로 연극인 공연 ‘관객모독’

강원원로 연극인 4명이 관객모독이란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10월 동안 춘천과 원주에서 4회 공연을 했다. 배우들이 관객을 향해 직접 말하고 배우와 관객, 무대와 객석, 연극과 현실사이의 경계는 사라지고,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현대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조롱하고 풍자한 작품으로 속초예총 국제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규호 교문이 함께했다.



■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환동해권 미술교류전”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환동해권 미술교류전’이 10월 6일(토)~11일(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했다. 대한민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훈춘 등 환동해권 도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작”이란 주제로 34명이 참여 58점의 회화작품을 전시했다.

■ 북청사자탈만들기



제53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기간에 속초미술협회 주관 ‘북청사자탈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북청사자는 함경도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초시 대표 신행민 문화콘텐츠로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전통문화 및 색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됐다.

■ 제21회 ‘갈매 거리 시화전’

제53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기간 중 로데오거리에서 문인협회 회원들의 시 작품 거리 시화전을 진행.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시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재미를 더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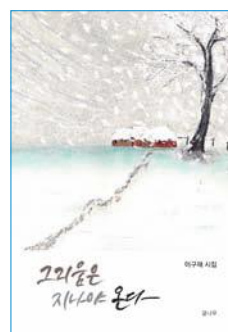
■ 한·중 국제 자매도시 사진문화예술 교류전



제53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기간 중 로데오거리에서 한·중 국제 자매도시 사진문화예술교류 ‘백두에서 설악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속초사진작가협회와 훈춘시 촬영가협회 회원들이 백두산과 설악산을 오가며 두 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 50여점을 전시했다.

■ 제4회 굿모닝 바다사랑 속초 제53회 설악문화제 촬영대회

속초사진작가협회 주관 제4회 굿모닝 바다사랑 속초 제53회 설악문화제 촬영대회가 속초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전국의 사진 동호회 회원들은 촬영을 위해 설악문화제 행사장을 누비며 다양한 공연 사진, 축제장의 이모저모를 촬영했다.



■ 이구재 시인 시집 발간

속초문인협회 소속 이구재 시인이 시집 『그리움은 지나야 온다』를 펴냈다.

■ 정명숙 시인 시집 발간

속초문인협회 소속 정명숙 시인이 시집 『섬이 바다에 머무는 것은』을 펴냈다.

■ 2018 강원도 문화의 날 “강원도 문화상 수상”

10월 19일(금) 오후 6시 정선아리랑 센터에서 열린 '2018 강원도



문화의 날' 행사에서 속초국악협회 신우근 사무국장이 강원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 제1회 강원문인대회 “강원문학작품상 수상”

10월 20일(토) 춘천교대 홍익관에서 열린 제1회 강원문인대회에서 문인협회 권정남 회원이 강원문학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

“제2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

2018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문화교류 'POCUS'를 10월 31일(수)~11월 5일(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노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속초예총과 연해주총연맹이 함께하는 본 행사는 국악, 무용공연과 함께 사진, 미술, 시화 전시를 통해 속초예술문화의 우수성을 알렸고, 양도시의 다양한 예술 장르 예술인 간 협업 및 문화전반에 대한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 권정남 시인 수필집 발간

올해 '종이 탑'이라는 시로 올해 강원문학작품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속초문인협회 소속 권정남 시인이 수필집 『겨울 비선대에서』를 출간했다.

■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할머니가 보여주는 속초이야기” 결과 발표회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할머니가 보여주는 속초이야기” 결과 발표회를 11월 9일(금) 오후 2시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의 1년 진행 과정을 공유하였고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과 작품 동영상을 감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 고주리 작품展



속초미술협회 고주리회장의 작품 전시회가 8월 강원진로교육원에 이어 11월 10일(토)~15일(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섬유공예의 조형성과 어울림의 미학' 이란 주제로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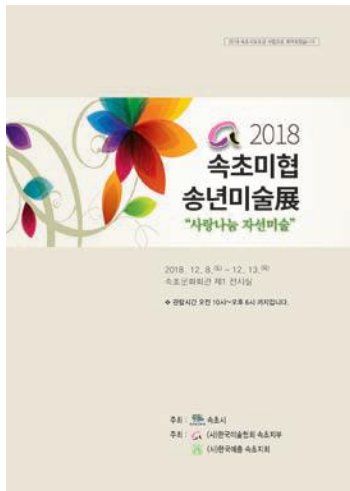
■ 11월 회장단회의



속초예총 11월 회장단 회의가 11월 16일(금)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안건은 2018 송년예총 행사인 사랑·나눔 자선미술전, 갈매 48집 출판 기념회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POCUS' 행사에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는 블라디보스톡 노총 문화예술 단장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 2018년도 송년예술제

- 2018 '속초미협 송년미술전' 사랑·나눔 자선미술



속초미술협회주관 사랑나눔 자선미술전이 12월 8일(토)~13일(목)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송년예술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미협회원 작품40여점을 선보였다. 사랑·나눔 자선 미술전 수익금은 장학금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 갈매 48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 시낭송회

문인협회 주관 갈매 48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 문학의 밤 행사가 12월 8일(토)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지역문학

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갈매 회원들의 열정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간 '갈매 48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작품 낭독 및 축하마당, 쉬어가는 마당으로 회원 퍼포먼스 시낭송, 독자 시낭송, 독자의 대화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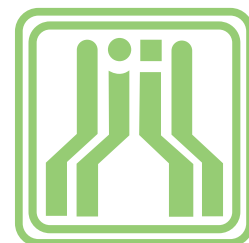
■ 『속초예술』지 18호 발간



속초예총의 연간지 『속초예술』지 18호가 발간됐다. 속초예총 및 8개 협회별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한 해 동안의 창작 및 예술활동 내용이 실렸다.

■ 속초예술 18호 출간기념회 및 속초 예총 송년(후원)의 밤

『속초예술』지 18호 출간기념회 및 속초예총 송년(후원)의 밤 행사가 12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아남프라자 대연회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속초예총 8개 협회 회원들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과 출간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로 속초예총 예술인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총 속초지회 예술문화활동에 항상 관심을 기울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문예술인단체인 속초예총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속초시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속초시 문화예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속초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쁘게 달려온 무술년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올 한해 공연, 전시 등 지역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예총가족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속초예총은 속초예총 송년의 밤 행사를 끝으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보람과 기쁨을 오로지 따뜻한 애정과 격려, 후원해주신 예총가족과 속초시민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새해 아침의 햇살은 언제나 어둠을 거두고 세상을 다시 희망으로 밝혀줍니다.

떠오르는 기해년(己亥年) 태양의 서광과 함께 성취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속초예총의 발전과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속초예총은 내년에도 창의적 예술기획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회

회장 정봉재 수석부회장 김종헌 부회장 신오일, 정연석 명예회장 김영복, 장규호

문인협회 회장 채재순 미술협회 회장 고주리 연극협회 회장 남상진 음악협회 회장 심연흠

국악협회 회장 주동진 무용협회 회장 양숙희 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정희 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엄계록

사무국장 이정무 사무과장 조순덕



2016년 12월 21일 동명새마을금고 주유소 준공식



MG새마을금고

동명

이 사장 황 경 훈
전 무 고 병 훈

책과 사람의 공간.
여기는 속초
문우당서림입니다.

주소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5 문우당서림
연락처 033.635.8055 / 033.635.8056
웹사이트 moonwoodang.com
인스타그램 @moonwoodang_bookshop
대표자 이민호

moon
文友堂書林
MOONWOODANG
BOOKSHOP



내맘같이 &

내일의 행복을 미리미리 보험박사 코리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
당신에게 딱 맞는 보험을 적척!

보험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고객행복을 내맘같이 생각합니다

NH농협생명 보험박사 코리와 함께
내일의 행복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자산 63.7조원 |
(2017년 말 기준)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등급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H농협생명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농업은 식량 안보는 물론 국토의 정원사,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 헌법에 반영되도록
국민공감 서명운동에 참여 해 주세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지 부 장 김 영 만

농정단장 김 민 철



전국 농축협,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금 확인하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속초시의사회

회 장 홍 영 기 (홍영기비뇨기과의원)

총 무 이 상 호 (이상호내과의원)

속초예술을 사랑합니다
속초예총을 후원합니다



초원환경산업(주)
대표 정 연 석

Since 1992

수술 **잘** 하는 병원이

비수술도 **더** 잘합니다!



말기 허리디스크 ▶▶ 인공디스크치환술 후

말기 목디스크 ▶▶ 인공디스크치환술 후



고해상도 3.0T MRI

자궁근종 프로 하이푸

전립선암 하이푸



<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

만성 허리통증,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났다면?

허리디스크·관절통증!
강남베드로병원에서 **극복**

목디스크·허리디스크·디스크주사치료·인공디스크치환술



강남베드로병원 | 1544-7522

목·허리 디스크, 관절염, 갑상선암, 중풍, 안면경련, 1:1건강검진
하이푸클리닉 | 자궁근종/선근종 비수술, 전립선암 비수술

『속초예술』 제18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향토문화예술인들이 회원인 한국예총 속초지회에서
발행하는 『속초예술』 제18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원합니다.



(재)주목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박 충 근

재경속초시민회는 속초예총을 후원합니다



재경속초시민회

회 장 유 종 국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 강원도민회관내 505호
☎ 02)333-1104, FAX 333-8520



속초금강대리점/대표
최 효 섭
010-5375-0915



HYUNDAI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속초시 동해대로 4087(조양동)
TEL. (033) 637-3100
FAX. (033) 637-3102
E-mail. chs063@hanmail.net

문화예술 중심도시, 속초를 꿈꾸며
속초예총을 후원합니다

창고형 타이어전문 할인매장



타이어매니아

매니저 정재원

타이어 및 케미컬류 교환



타이어매니아

네이버블로그

속초타이어매니아

푸른유리

속초시환경에너지사업소

이뿐이것갈

양양

속초

↓외용치



아름다운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길 84

Phone_ 033 · 636 · 5790

Mobile_ 010 · 3345 · 5790



진수산은 속초예총을 후원합니다

수산업발전에 앞장서는

진수산 그룹

(주)進수산

산지유통 선도하는 기업
(주)진수산



(주)청호씨푸드
CHUNGHO SEAFOOD CO., LTD
붉은대게 수출 전문 기업
(주)청호씨푸드



(주) 대도 F&D
동결건조 제조 연구 선도기업
(주)대도



명태 가공 전문 기업
청호동사람들



Jin-Susan
산지 수산물 가공 유통 기업
진수산FPC



크랩시장 대중화 선도하는 기업
청호마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미시령 터널

푸르른 자연이 휴식이 되어주고
드넓은 동해바다로 가는 아름다운 길

미시령터널
경품EVENT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시면 **대박 경품의 기회**를 드립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여 만나는 아홉가지 힐링 심포

자동차출발
미시령 힐링가도



| 공작산 수타사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곳



| 가리산 레포츠파크
다양한 레포츠와
테마가 있는 여행지



| 용소계곡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계곡



| 원대리 자작나무숲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백백한 자작나무숲의 정취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숲



| 합강정 & 번지점프
합강정 공원내에 있는 국내
최고 높이인 63m의 번지점프대



| 소양강 둘레길
가족, 연인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소양강 둘레길



| 십이선녀탕계곡
계곡의 맑은 물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환율한 풍경을
선물하는 계곡



| 백담사
설악산이라는 대자연의 절경
속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



| 울산바위
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우
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하는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



설악 · 금강대교의 야경



청초호 요트마리나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속초시



설악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속초관광수산시장